3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0. 12.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Ⅰ. 조사 개요 ····· 1

1. 조사배경 ····· 2
2. 조사목적 ····· 2
3. 기대효과 ····· 3
4. 조사개요 ····· 4
5. 조사 진행 일정 ····· 5

Ⅱ. 조사 설계 ····· 7

1. 표본 설계 ····· 8
2. 표본 구성 ····· 13
3. 가중치 산출 ····· 21
4. 소득세 및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 수집 ····· 29

Ⅲ. 조사내용 ····· 32

1. 조사표 구조 ····· 33
2. 가구용 조사표 내용 ····· 34
3. 가구원용 조사표 내용 ····· 36
4. 3차년도에 추가된 내용 ····· 39

Ⅳ. 실사 진행 과정 ····· 41

1. 실사 준비 과정 ····· 42
2. 실사 품질 제고 방안 ····· 46
3. 실사 진행 과정 ····· 47

Ⅴ. 재정패널 표본 특성 ····· 52
1. 조사 결과 분석 기준 ····· 53
2. 표본 가구의 구성 ····· 59
3. 표본가구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 60
4. 표본가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 63

Ⅵ. 가구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 ····· 67
1. 주택 현황 ····· 68
2. 자동차 보유 현황 ····· 72
3. 가구 소득 현황 ····· 74
4. 가계 지출 현황 ····· 77
5.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 80
6. 복지현황 ····· 81
7. 기타 환급금 및 보조금 ····· 82
8. 가구 자산 및 부채 ····· 83

Ⅶ. 가구원 조사표 조사 결과 요약 ····· 88
1. 조사시점 5월 기준 경제활동상태 ····· 89
2. 연간 소득(개인) ····· 90
3. 연간 연금·보험 지출 ····· 93
4. 소득공제 내역 ····· 95



Ⅰ. 조사개요

Ⅰ. 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대표성을 띤 통계의 생산과 분석은 정책형성과 학문적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여 왔다. 특히 패널조사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한다. 국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횡단면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등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조사가 존재하며 이러한 패널 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정책형성과 평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07년 1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해 세금제도 개편시 정책효과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국세청 자료는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역할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즉,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담과 혜택의 공평성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지출의 불합리성과 국민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2. 조사목적

이러한 배경 하에 기획된 재정패널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국가와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예를 들

어, 조세제도가 개편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측하고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패널 데이터는 소득, 지출, 조세, 복지수혜를 포괄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조세 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조세 모의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 기대효과

재정패널 조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패널 데이터가 구축되면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개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 평가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년 단위분석에서 패널 데이터로 인해 연간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조세와 재정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관련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조세, 재정관련 통계의 경우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연구주기가 단기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국가통계에 준하는 패널 데이터가 종단면적으로 다양하게 생산됨으로써 조세, 재정관련 통계 인프라가 재편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연구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조세, 재정분야의 경우 연구의 특성상 상당부분 데이터에 의존하는 계량적인 연구가 필수적인데 재정패널을 통해 데이터의 부재로 그동안 연구가 불가능했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학문과 정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4.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는 1차년도에 구축된 전국(제주도 제외) 5,014가구와 2차년도 조사에서 탈락한 가구를 대체해서 추출한 대체가구[1] 620 가구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1, 2차년도 표본가구의 가구원이 결혼, 취업 등의 사유로 분가하였을 경우 분가한 가구원을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가구원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활동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표의 구성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 조사표와 가구원(개인) 조사표로 구성된다. 가구 조사표는 가구의 현황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 연간 소득이나 소득세 납부액, 소득신고 현황에 대한 설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실사 수행기관

2010년 2월부터 2010년 4월 사이에 외부 조사기관을 선정[2]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었다. 공모 결과 마케팅·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 research international이 1, 2차년도와 동일하게 재정패널 조사의 실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1) 만약 1차년도 표본 가구가 거절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1차년도에 사용한 표본 추출틀을 활용하여 대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 표본 추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주로 이용했으며, 2005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 리스트를 추가적인 표집틀로 활용했다.

2) 1차년도 선정시기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 사이, 2차년도 선정시기는 2009년 2월부터 2009년 4월 사이 이다.

라 조사기간 및 조사 기준시점

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는 2010년 5월~8월 사이에 진행됐다. 조사표에서 측정하는 기준 시점은 2009년이며,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을 측정하는 질문은 2009년 1월~12월간의 1년을 기준으로 조사했고, 저량(stock)은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단, 가구원 조사표의 경제활동 상태는 조사 시작 시점인 201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마. 조사방법

재정패널 조사는 조사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조사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응답자가 심야에 귀가해 만나기가 어렵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조사 방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조사 도구는 1, 2차년도와 동일하게 종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5. 조사 진행 일정

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의 현장 실사는 5월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됐다. 당초 8월 초까지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철이 겹치면서 일부 패널과의 약속이 연기되고,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해 재컨택을 지속하면서 실사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

<표 Ⅰ-1> 재정패널 조사 진행 일정

항목	진행 일정	
	2차년도	3차년도
조사 용역 수행 기관 선정	3월~4월 초	3월
조사 설계 및 협의	4월 14일 ~ 5월 6일	3월~4월
면접원 교육	5월 7일 ~ 5월 8일	4월 26일~4월 27일
현장 실사 진행	**5월 15일 ~ 9월 중순**	**5월~8월**
검증 및 통계 처리	8월 중순 ~ 9월 30일	7월~9월
중간보고회 개최	-	9월 3일
1차 데이터 제출	10월 15일	10월 8일
최종 실사보고서 제출	11월 7일	10월 29일
최종보고회 개최	-	12월 2일~12월 3일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21일	12월 27일
2차 데이터 제출	12월 13일	12월 27일
자료 신뢰도 보고서 제출	2월 18일	1월 예정



Ⅱ. 조사설계

Ⅱ. 조사 설계

1. 표본설계

가. 표본크기

재정패널 조사의 목표 유효표본 크기는 5,010개 가구이다. 표본수를 늘리면 표본오차는 감소하나, 일정한 표본크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오차의 감소폭이 현저히 줄어든다. 대신 표본수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경우 무리한 조사 진행 등으로 인해 실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비표본오차는 응답자의 거짓 응답, 무응답이나 면접원의 선택편향, 지침 위반, 불성실한 태도 등 실사 진행과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조사 목적과 여건을 감안해 적절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패널 조사는 5000 가구 표본이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그 이상으로 표본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5000 표본을 충실히 조사해서 비표본오차를 줄이는 것이 조사 품질 제고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본적으로 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의 목표 유효표본 크기는 1차년도에 구축된 5,014개 가구와 2차년도에 추가로 추출한 대체표본 가구 620개 가구이다. 여기서 대체표본 가구의 존재는 다른 패널에서 찾아 보기 힘든 재정패널 조사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재정패널 조사의 주 연구 주제인 가구의 조세·재정 정보는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종단적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 또한,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소득세 납부 유형별로 유의미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같은 배경에서 재정패널 조사는 2차년도 조사에서도 일정한 표본크기(5,000가구 이상) 이상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표본의 탈락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1차적 과제였지만, 조사가 불가능한 표본에 대해서는 대체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매년 대체표본을 추출한다면, 가중치 보정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종단

적 분석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차년도 조사부터는 대체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기존에 구축된 표본가구에 대한 추적조사만 진행하기로 했다.

나. 모집단

재정패널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의 개념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참고로 재정패널 조사의 원표본가구와 대체표본가구를 추출하기 위한 모집단 자료(sampling frame)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중 통계청에서 외부 통계작성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90% 자료를 이용했다. 한편, 재정패널 조사의 시작시점(2008년)과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작성 시점(2005년)간에 3년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모집단의 특성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했다.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2005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 단지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추가적인 표집틀로 활용했다.

다. 표본설계 개요

1차년도에 표집된 전국 5,014가구와 2009년에 추가로 조사된 대체가구 620가구, 그리고 표본가구에서 분가한 분가가구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에 성공한 표본은 3차년도 재정패널조사의 표본으로 재표집된다.

1) 1차년도 표본설계

1차년도 재정패널 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신축아파트 입주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을 설계했다.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하는데, 이 때 조사구는 전수조사구 90%를 활용했다. 그리고 추출된 조사구에서의 일정 수의 가구를 2차적으로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신축아파트는 2005년 조사 당시에 없었던 지역으로 센서스 조사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005년 11월 이후 입주아파트를 우선 60~80가구 정도씩 묶어 일종의 가상적인 조사구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의 가구추출률과 비슷한 추출률이 유지되도록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추출했다.

또한 재정패널 조사의 목적을 감안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실제 분포보다 많이 표집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을 선정했고, 이 지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과대표집(over sampling)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조사구에서 추출하는 가구수는 5개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신축아파트 조사구와 과대표집 조사구도 역시 한 개의 조사구에서 다섯 가구를 추출했다. 그러므로 가구 표본 5,010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 조사구 수는 1,002개로 설계했다.

이러한 표본설계에 입각해 1차년도에 최종 표집된 표본의 구성표는 다음 표와 같았다. 총 1,002개의 조사구에서 5,014가구가 표집됐다.

<표 II-1> 1차년도 조사 원표본 구성

표집틀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특정지역 과대표집 포함)				신축아파트조사구		합계
지역특성	동부		읍면부		동부	읍면부	
조사구 형태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전국	2,108	1,797	620	174	275	40	5,014
서울	556	429			90		1075
부산	225	130	10		20		385
대구	150	95	10	10	15	5	285
인천	116	105	10		15		246
광주	95	80			10		185
대전	95	76			10		181
울산	55	55	10	10	10		140
경기	326	371	75	44	45	15	876
강원	60	60	35	10	10		175
충북	55	61	35	10	5	5	171
충남	50	50	70	20	10	5	205
전북	85	75	75	10	10		255
전남	65	55	115	10	10		255
경북	80	70	110	20	5	5	290
경남	95	85	65	30	10	5	290

2) 2차년도 대체표본 추출 과정

원 표본가구가 조사 참여를 거절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몇 차례 방문을 해도 가구원을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례는 개체 무응답(Unit nonresponse)이라 볼 수 있는데, 개체무응답의 빈도가 높을 경우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패널조사에서는 표본의 탈락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조사거절 가구나 접촉불가능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방문시간과 요일을 조정하여 4회 이상 재방문함으로써 조사 불능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조사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한 표본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조사 차수(wave)별 표본수

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물론 국내외 주요 패널조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표본의 탈락율은 2차 조사에서 정점에 이른 뒤 이후 조사부터는 안정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패널조사는 종단적 분석이 중요한 연구목적이므로 기존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에만 집중해 왔으며, 원 표본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표본의 대체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패널조사의 주 연구 주제인 가구의 조세·재정 정보는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소득세 납부 유형별로 유의미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2차년도 탈락 표본에 대해서는 대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이 때 표본의 대체 방식은 확률추출법에 의거한다. 탈락한 표본(n)이 속해 있던 조사구 내에서 가구리스트 정렬 순서상 n+1 → n-1 순서로 체계적인 대체를 실시한다. 이러한 방식은 1차년도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대체했던 방식과 동일하며, 랜덤화의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탈락된 표본과 여러 가지 변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가정했다.

3) 분가가구 추적 조사

1차년도~2차년도 표본가구에 속해 있던 가구원이 결혼이나 경제적 이유로 3차년도 조사시점에 분가해 나갔을 경우에는 분가한 가구원을 찾아서 조사를 진행했다. 분가하는 가구의 대부분은 결혼, 직장 등의 사유로 분가하는 젊은 가구원이 많으며 이들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가 가구를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 기존 패널가구의 노쇠화가 진행되고 신규 생성 가구는 조사에서 누락되므로 전체 모집단 특성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

다만, 군입대나 이민, 가출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구원은 신규 가구를 생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적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대졸자 이하의 자녀가 학업목적으로 분가했을 경우에는 원 가구에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가구원이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표본 구성

가. 전체 표본가구 구성

<표 II-2> 1~3차년도 조사결과 개요

구분	원 표본가구	대체 표본가구	분가가구 추적	6월 이전 분가가구	7월 이후 분가가구*	합계
3차	4,172	575	67	16	54	4,884
2차	4,396	620	-	23	57	5,096
1차	5,014	-	-	-	-	5,014

3차년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4,884가구가 표집되었다. 3차년도 표본가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II-3> 3차년도 최종 표본구성

시도 (3차년도 거주지 기준)	원 표본가구	대체 표본가구	2차년도 분가가구 추적	2009년 6월 이전 분가가구	2009년 7월 이후 분가가구*	합계
전국	4,172	575	67	16	54	4,884
서울	792	182	11	4	6	995
부산	326	42	5	1	6	380
대구	252	28	4	3	2	289
인천	200	35	3	1	4	243
광주	161	15	5	3	3	187
대전	166	28	0	0	0	194
울산	117	11	3	0	2	133
경기	708	121	10	1	7	847
강원	156	5	1	0	2	164
충북	145	23	2	0	0	170
충남	173	14	2	0	3	192

시도 (3차년도 거주지 기준)	원 표본가구	대체 표본가구	2차년도 분가가구 추적	2009년 6월 이전 분가가구	2009년 7월 이후 분가가구*	합계
전북	228	18	4	2	5	257
전남	242	7	5	0	5	259
경북	246	23	1	1	4	275
경남	259	23	11	0	5	298
제주	1	0	0	0	0	1

* 2009년 7월 이후 분가가구는 2011년 조사 시점부터 정식 유효표본으로 인정됨.

나. 원 표본가구 유지율

1차년도에 구축되었던 원 패널가구 중 3차년도에도 조사에 성공하여 패널로 유지된 가구는 모두 4,172가구로 패널 유지율은 83.2%이다. 3차년도 조사 설계시 목표 유지율로 설정한 83.0%를 초과했으며, 소득과 자산, 세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점과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할당된 표본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비교적 양호한 유지율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패널 유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93.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7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원표본 탈락율이 지방과 도 지역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원 표본가구 유지율 A : 분모에 사망과 이민 포함

시도	1차년도 지역별 표본 가구수	3차년도 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원 표본가구 유지율
전국	5,014	4,172	83.2
서울	1,075	805	74.9
부산	385	326	84.7
대구	285	250	87.7
인천	246	201	81.7
광주	185	163	88.1
대전	181	159	87.8
울산	140	119	85.0
경기	876	694	79.2
강원	175	162	92.6
충북	171	140	81.9
충남	205	181	88.3
전북	255	224	87.8
전남	255	238	93.3
경북	290	250	86.2
경남	290	260	89.7

* 원표본 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 당시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지역별 성공 표본수는 3차년도 실제 거주지역과 차이가 있음.

재정패널 조사의 3차년도 패널유지율(A) 83.2%는 국내외 유수 패널과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패널조사로 불리는 노동패널 3차년도 조사의 유지율 80.9%에 비해 약 2.3%p 정도 높은 유지율을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사회조사 응답율이 저하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표 II-5> 국내외 주요 패널조사 패널유지율 비교

(%)	재정패널	노동패널	미국PSID	독일GSEP	영국BHPS
2차년도	87.7(2009)	87.6(1999)	88.5(1969)	88(1985)	87.7(1991)
3차년도	83.2(2010)	80.9(2000)	86.3(1970)	84(1986)	81.5(1992)

* 괄호 안은 조사가 진행된 년도 (타 조사 유지율은 노동패널 3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인용)
* PSID : Panel Study Income Dynamics
* GSEP : German Socio-Economic Panel
* BHPS :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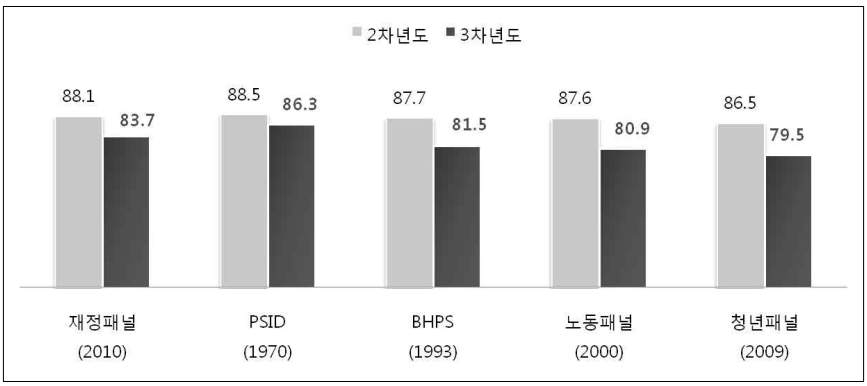
그러나 일반적으로 패널유지율을 계산할 때에는 '사망'과 '해외이민'과 같은 케이스는 가구가 소멸된 것이므로 분모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정패널 조사는 올해가 3차년도 조사로 사망이나 해외이민 등의 사례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편의상 1차년도에 표집한 5,014가구 전체를 분모로 놓고 계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멸되는 가구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고, 다른 패널조사와의 비교를 위해서라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패널유지율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표 II-6> 패널유지율 계산방법

구분	계산법	실제 계산에 적용되는 분모수
패널유지율(A) 기존 유지율 계산법	1차년도 표집된 원가구 전체를 분모로 함	5,014
패널유지율(B) 통상적인 유지율 계산법	원가구 중 소멸가구(이민과 사망)를 분모에서 제외	4,983

1차년도 조사 이후 3년간 해외이민으로 파악된 가구가 13가구, 그리고 가구원 전원이 사망한 가구가 18 가구로 가구 자체가 소멸된 사례수는 31건이다. 따라서 1차년도 원 표본가구 5,014가구 중 패널유지율(B) 계산을 위한 분모는 4,983개 가구이다. 이를 기준으로 패널유지율을 계산해보면 전국 기준으로 83.7%로 집계된다.

[그림 II-1] 국내외 주요 패널조사 패널유지율(B) 비교



<표 II-7> 원 표본가구 유지율 B : 분모에서 사망과 이민 제외]

시도	1차년도 지역별 표본 가구수	3차년도 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원 표본가구 유지율
전국	4,983	4,172	83.7
서울	1,068	805	75.4
부산	380	326	85.8
대구	283	250	88.3
인천	244	201	82.4
광주	183	163	89.1
대전	181	159	87.8
울산	140	119	85.0
경기	872	694	79.6
강원	174	162	93.1
충북	169	140	82.8
충남	205	181	88.3
전북	253	224	88.5
전남	253	238	94.1
경북	289	250	86.5
경남	289	260	90.0

* 원표본 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 당시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지역별 성공 표본수는 3차년도 실제 거주지역과 차이가 있음.

다. 대체 및 분가 표본가구 유지율

1차년도 조사에서는 표집되지 않았으나 2차년도 조사 시점부터 추가로 표집된 대체표본가구와 분가가구는 각각 92.7%, 83.8%의 유지율을 기록했다.

<표 II-8> 대체 및 분가가구 유지율

시도	대체표본			2차년도 조사 당시 분가가구		
	2차년도 조사성공	3차년도 조사성공	유지율A (%)	2차년도 조사성공	3차년도 조사성공	유지율A (%)
전국	620	575	92.7	80	67	83.8
서울	205	185	90.2	12	10	83.3
부산	44	40	90.9	8	6	75.0
대구	29	27	93.1	4	3	75.0
인천	40	36	90.0	4	3	75.0
광주	14	14	100.0	10	8	80.0
대전	20	20	100.0	-	-	-
울산	13	11	84.6	5	4	80.0
경기	125	117	93.6	5	5	100.0
강원	10	7	70.0	2	2	100.0
충북	29	29	100.0	3	3	100.0
충남	16	16	100.0	2	2	100.0
전북	18	18	100.0	9	7	77.8
전남	7	7	100.0	6	4	66.7
경북	24	23	95.8	1	1	100.0
경남	26	25	96.2	9	9	100.0

라. 탈락가구 현황

1) 탈락 사유 구분

추적조사에서 탈락한 가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분하였다.

① 강력거절 : 표본가구가 조사 참여를 완강히 거절한 경우

② 추적실패(주소 불명) : 전화번호 결번 등으로 사전 컨택이 되지 않으며,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이사로 추정되어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망/이민/입원 등 : 가구 응답자가 각각의 사유로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 장기 부재, 약속 반복 위반, 비정상적인 응답자 등

2) 원 표본가구 중 탈락·소멸 가구 유형

3차년도 조사 참여를 거부한 811 가구를 사유별로 보면, 강력거절로 인한 탈락이 521가구로 전체의 6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추적실패는 147가구로 30.4%였다. 사망과 이민 등으로 소멸된 가구는 총 31가구로 집계됐다. 1차년도 조사 당시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탈락 및 소멸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9> 시도별 원표본가구 탈락 및 소멸가구 현황

시도	탈락 가구					소멸가구		
	강력거절	추적실패	병원입원	기타	*소계*	사망	해외이민	*소계*
전국	521	247	9	34	*811*	18	13	*31*
서울	173	78	3	9	*263*	1	6	*7*
부산	33	19	1	1	*54*	3	2	*5*
대구	27	6			*33*	1	1	*2*
인천	30	13			*43*	1	1	*2*
광주	14	6			*20*	2		*2*
대전	11	10		1	*22*			*0*
울산	15	6			*21*			*0*
경기	101	65	3	9	*178*	2	2	*4*
강원	4	8			*12*	1		*1*
충북	22	2	1	4	*29*	1	1	*2*
충남	13	4		7	*24*			*0*
전북	20	7	1	1	*29*	2		*2*
전남	11	3		1	*15*	2		*2*
경북	25	14			*39*	1		*1*
경남	22	6		1	*29*	1		*1*

3) 대체가구·분가가구 중 탈락·소멸가구 유형

대체가구와 분가가구 탈락 사유 역시 '강력 거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대체가구 및 분가가구 탈락 사유

시도	탈락 가구					소멸가구		
	강력 거절	추적 실패	병원 입원	기타	*소계*	사망	해외 이민	*소계*
대체 가구	23	14	1	4	*42*	-	3	*3*
분가 가구	5	3	-	4	*12*	1	-	*1*

라. 신규 분가가구 현황

2차년도 조사에서 분가가구 80가구가 추가로 조사됐다. 하지만 2차년도 조사 시점 이후에도 다시 분가한 가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3차년도 조사에서는 분가가구 표본 수가 70개가 더 추가됐다.

이 중 2009년 6월 이전에 분가한 가구는 이미 분가 가구원이 새로운 가구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한 것이 되므로, 이 가구의 지난해 경제상황을 모두 조사하였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이 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조사표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러한 가구는 16가구이며, 이 가구는 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결과 분석 과정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09년 7월 1일 이후 분가하여 형성된 가구는 분가 가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원가구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한 것이 되므로 이 가구원의 경제상황은 원 표본가구에서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4차년도부터는 이 분가가구 또한 6개월 이상 함께 동거한 가구원으로 구성되므로, 차후년도 조사를 위해 분가가구를 찾아가 가구원 현황만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조사된 가구는 54가구이며, 이 가구는 4차년도 조사부터 정식 표본가구로 인정된다. 따라서 3차년도 분석과정에서 이들 가구의 데이터는 제외된다.

3차년도 조사에서 새로 표집된 분가가구의 사유를 살펴보면 혼인으로 인한 분

가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장(19건), 학업(9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1> 분가 유형별 분가 성공 가구수

구분	혼인	직장	학업	이혼	기타	합계
전체	33	19	9	1	8	70
서울	6	1	2	1		10
부산	4		2		1	7
대구	4	1				5
인천	3	1	1			5
광주	2	2	1		1	6
대전						
울산	2					2
경기	1	3	3		1	8
강원	1				1	2
충북						
충남		3				3
전북	2	3			2	7
전남	2	2			1	5
경북	2	3				5
경남	4				1	5

3. 가중치 산출

가. 가중치 산출 목적

일반적으로 복합표본조사(complex sample survey)의 가중치는 ㉠ 설계 가중치,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또는 레이킹(raking ratio)에 의한 조정 등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재정패널 가중치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3단계 과정을 통해 작성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사자료의 추정과정에서 가중치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대한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

하고 분석하면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패널과 같이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조사(panel survey)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중 2차 웨이브(wave) 이후에 무응답이 발생하거나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표본이 마모(sample attrition)됨으로써 표본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원 패널가구의 가구원이 분가 등을 통해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게 되면, 이에 대한 추적조사 과정을 통해 신규 가구가 패널에 추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연구대상 모집단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널조사의 경우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한 표본 및 모집단 변동을 감안한 가중치 보정과정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패널조사에서는 웨이브가 진행되면서 조사 자료가 누적되면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cross-sectional) 분석을 위한 가중치과 함께 동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면(longitudinal) 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분리해 적용함으로써 패널자료를 활용해 대표성 있는 통계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 3차년도 조사 가중치

재정패널 3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 총 3가지의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1,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3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산출되었으며, 2차년도와는 달리 3차 년도에는 두 개의 종단면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이는 3개년도(1차~3차)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2개년도(2차~3차) 종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별도로 작성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3가지의 가중치는 무응답 보정과 레이킹(raking ratio)방법을 통한 2단계의 보정작업을 통해 산출되었다. 3개년도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 산출에는 원년도(1차년도) 가중치를 사용하였고, 2개년도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이용하였다. 횡단면 자료는 2008년 7월 이후 분가가구와 2009년 6월 이전 분가가구를 포함하므로, 해당 분가가구를 위한 횡단면 가중치는 2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기본 가중치를 부여 하고, 기존 가구(원패널가구, 대체가구)에는 무응답 보정을 하고 분가가구와 무응답 가구를 합하여 레이킹을 통해 횡단면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재정패널의 경우 표본 가구 내의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이 조사

대상 가구원이 되고 실제 가구원 무응답률은 매우 낮아 가구원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조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구원 분석을 위한 가중치로 해당 가구의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한다.

1) 표본특성

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결과[3] 응답여부의 분포는 <표 II-12>와 같다. 3차년도 원패널 및 대체가구 표본 유지율은 각각 82.21%와 92.74%로, 5,014가구 중에서 4,122가구, 620가구 중에서 575가구를 조사 성공했다. 3차년도 이후의 자료수집 및 모집단 모수추정을 고려할 때 1차 년도에 조사가 되고 2차 년도에 조사실패 하였으나 3차 년도에 다시 조사된 50 가구에 가중치는 부여되지 않았는데, 이는 패널조사에서 2차년도에 흔히 발생하는 표본마모에 따른 패널 축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재정패널에서는 1차년도 원표본 중 조사에 실패한 가구는 인접가구로 대체해 2차년에 패널을 보완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3차년도 분가가구 이외의 원표본 중 2차년도에 조사실패한 가구는 3차년도 가중치 부여과정에서 제외되었다. <표 II-13>의 지역별 표본 유지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90.81%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그리고 울산의 유지율이 평균 표본 유지율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개년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 2개년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 그리고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에 해당하는 가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3개년, 2개년 종단면 분석과 3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유도되었다.

2) 3개(1차~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3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 2차년도 그리고 3차년도 모두 응답한 4,122가구에 부여되며 1차년도의 최종 가중치에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위한 보정과 이후 2010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보정의 2단계로 계산되어진다.

3) 3차년도 조사는 2009년 6월 이전 분가가구만 관심 집단으로 간주한다.

<표 II-12> 3차년도 패널가구 응답여부 분포

가구 구분	가구 수	비율(%)
원패널가구-조사성공	4,122	70.64
원패널가구-2차년도 조사성공, 3차년도 조사실패	274	4.70
원패널가구-2차년도 조사실패	618	10.59
2차년도 대체가구-조사성공	575	9.85
2차년도 대체가구-조사실패	45	0.77
2008년 6월 이전 분가가구-조사성공	23	0.39
2008년 6월 이전 분가가구-조사제외	12	0.21
2009년 6월 이전 분가가구-조사성공	60	1.03
2009년 6월 이전 분가가구-조사실패	28	0.48
2009년 7월 이후 분가가구	78	1.34
합계	5,835	100.00

<표 II-13> 3차년도 지역별 표본 유지율(2차년도 조사성공 가구 기준)

지역	조사 성공	조사 실패	유지율(%)
서울	968	98	90.81
부산	362	22	94.27
대구	276	10	96.50
인천	232	14	94.31
광주	175	11	94.09
대전	176	6	96.70
울산	134	10	93.06
경기	820	73	91.83
강원	167	8	95.43
충북	167	6	96.53
충남	193	10	95.07
전북	244	13	94.94
전남	248	10	96.12
경북	273	18	93.81
경남	285	10	96.61
총합	4,720	319	93.67

원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위하여서는 3차년도 응답여부 변수와 1차년도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3차년도 응답가구의 응답확률을 예측하였다. 1차년도에 작성된 각 가구의 최종 가중치를 w_{2008}이라 표기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된 예측 응답확률을 $\hat{p}_{3,2010}$라 할 때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가중치는

$$w_{3,2010}^{(1)} = w_{2008} \times \hat{p}_{3,2010}^{-1}$$

로 표현된다. 실제 $\hat{p}_{3,2010}$의 예측을 위하여 적용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log\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text{가구주성별}\beta_1 + \text{가구원수}\beta_2 + \text{가구주연령}\beta_3 + \text{지역}\beta_4 + \text{가구연간소득총액}\beta_5 \quad (1)$$

이다. <표 II-14>는 3개년 응답 가구들의 예측 응답확률, $\hat{p}_{3,2010}$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 가구들의 예측 응답확률의 평균은 0.83이고, 최소값은 0.5184이다.

<표 II-14> 3개년(1차~3차) 예측 응답확률 분포

구분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수
3년(1차~3차) 응답	4,122	0.8300	0.0698	0.8410

원패널 탈락으로 인한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 $w_{3,2010}^{(1)}$은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2010년 추계 자료의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1차년도에 사용된 레이킹 기법이 사용되었다. 2010년 레이킹을 위해서 지역과 가구주의 성, 연령, 그리고 가구원 수의 결합분포 대신 각 변수들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다. 2009년 추계 가구들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그리고 가구원 수 분포는 <표 II-15>와 같다.

<표 II-15> 2010년 추계 가구 분포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서울	3,570,190	남자	13,200,242	0세-39세	4,632,811	4인 미만	10,902,494
부산	1,223,884	여자	3,760,389	40세-49세	4,376,338	4인 이상	6,058,137
대구	833,947	합계	16,960,631	50세-59세	3,751,413	합계	16,960,631
인천	915,045			60세 이상	4,200,069		
광주	489,770			합계	16,960,631		
대전	527,151						
울산	368,147						
경기	3,880,724						
강원	540,072						
충북	530,771						
충남	711,711						
전북	624,311						
전남	656,511						
경북	968,878						
경남	1,119,519						
합계	16,960,631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3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극단값을 갖는 경우를 조정하기 위하여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대값을 13,300으로 제한하였다. <표 II-16>은 1차년도 최종 가중치,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한 무응답 보정후의 가중치 $w_{3,2010}^{(1)}$, 그리고 3차년도 최종 3개년 종단면 가중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16> 2010년 3개년(1차~3차) 종단면 가중치 분포

변수명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수
1차년도 최종 가중치	5,014	3,288.14	1,571.37	3,196.36
3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4,122	4,015.42	2,043.81	3,860.65
3차년도 3개년 종단면 가중치	4,122	4,114.66	2,392.41	3,777.14

3) 2개(2차~3차)년 종단면 가중치 산출

2개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3개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 산출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2개년 종단면 가중치는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응답한 4,718가구에 부여되며, 2개년 종단면 가중치 산출에 사용되는 기본 가중치는 2차년도에 작성된 횡단면 최종가중치가 사용되었고, 식(1)을 이용한 응답확률 예측에는 2차년도의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2차년도에 작성된 각 가구의 횡단면 최종 가중치를 w_{2009}이라 표기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된 예측 응답확률을 $\hat{p}_{2,2010}$라 할 때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가중치는

$$w_{2,2010}^{(1)} = w_{2009} \times \hat{p}_{2,2010}^{-1} \quad (2)$$

로 표현된다. <표 II-17>은 2개년도 응답 가구들의 예측 응답확률, $\hat{p}_{2,2010}$,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 가구들의 예측 응답확률의 평균은 0.9379이고, 최솟값은 0.2394이다.

<표 II-17> 2개년(2차~3차) 예측 응답확률 분포

구분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수
2년(2차~3차) 응답	4,718	0.9379	0.0307	0.9432

3개년도 종단면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표 II-15>를 이용한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2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극단값을 갖는 경우를 조정하기 위하여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2,050으로 제한하였다. <표 II-18>은 2차년도 최종 횡단면 가중치,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한 무응답 보정후의 가중치 $w_{2,2010}^{(1)}$, 그리고 3차년도 최종 2개년 종단면 가중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18> 2010년 2개년(2차~3차) 종단면 가중치 분포

변수명	표본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수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5,037	3,321.00	1,759.68	3,130.27
3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	4,718	3,550.01	1,924.85	3,338.33
3차년도 2개년 종단면 가중치	4,718	3,594.88	2,051.65	3,324.37

4)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은 가구형태(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1차년도 분가가구, 2차년도 분가가구)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0년 추계 자료 이용한 레이킹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각 가구형태별 1단계 가중치 산출을 살펴보면, 먼저 3차 년도에 조사된 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그리고 1차년도 분가가구의 경우, 3차년도에는 패널 탈락가구를 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1단계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무응답 보정은 식(2)를 사용하였다. 2차년도 분가가구의 경우는, 1차년도 분가가구의 1단계 가중치 부여와 같은 방법으로 분가의 사유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부여되었다.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분가 이전 원가구의 가중치의 1/2을 부여하였고 기타 사유의 분가가구의 경우 원가구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분가사유가 결혼인 39가구 중 3차년도에 응답하지 않은 19가구의 가중치를 조사 성공한 20가구에 부여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가 사유가 결혼인 39가구를 2차년도 원가구 가구연간소득총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 내에서 3차년도 무응답 가구의 가중치를 응답가구에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0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가중치의 산출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표 II-19>는 위에서 고려한 가구들에 부여된 1단계 가중치와 레이킹을 이용하여 보정된 최종 가중치를 나타낸다.

<표 II-19>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분포

변수명	표본 수	평균값	표준편차	중위수
1단계 가중치	4,778	3,541.80	1,922.09	3,319.07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4,778	3,549.73	2,001.55	3,303.53

4. 소득세 및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 수집

가. 증빙서류 수집 목적

가구원 조사표에서는 연간 소득, 연금·보험 지출 및 소득, 소득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조사했다. 그러나 소득공제 내역은 각 항목별로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회상해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소득공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수집하는 것도 조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운영했다.

나. 수집 대상 서류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년간 소득내역과 공제내역, 결정세액 등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본 조사에서는 2009년 소득 공제내역을 조사하므로 2010년 1~2월 경에 근무처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수집 대상이 되었다.

종합소득 신고자는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모든 서류를 다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명세서] 2가지 서류를 수집하기로 했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2010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되므로 이 기간에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수집 대상이 되었다. 단, 방문판매나 보험모집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집 서류에 포함시켰다.

다. 3차년도 조사 서류 수집 현황

3차년도 조사 준비 시점에서는 전체 가구의 약 30%에서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1,485가구에서 1,598건의 서류가 수집되어, 총 4,884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 수집율은 30.4%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본가구 중 54가구는 2009년 7월 이후 분가로 유효표본이 아니므로, 정확한 수집율은 4,830 가구 대비 30.7%로 보아야 한다. 어떤 계산법을 적용하든 조사 설계 시점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과년도 귀속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29개 가구에서 3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상당수는 2009년 서류를 함께 제출했으며, 12개 가구는 과년도 서류만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 II-20> 소득 증빙서류 수집현황

구분	수량*
2009년도 귀속서류 수집 건수	1,598
제출 가구원 수	1,586
제출 가구 수	1,48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구	1,355
종합소득 신고서 제출 가구	258
2007~8년 귀속서류 수집 가구수	29
2007~8년 귀속서류 수집 건수	31

※ 서류 건수는 최종 수집된 서류의 수량을 의미하며, 가구와 가구원 수는 해당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기준으로 집계함.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가구원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있고, 한 가구원이 서류를 2장 제출한 경우도 있으므로 서류 제출 건수와 제출 가구수, 제출 가구원 수가 서로 다르게 됨.

그런데 모든 가구가 증빙서류 수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가 필요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수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소득자나 금융소득자 중에서도 소득신고를 한 가구원만 수집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수집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수집율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대상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53.5%의 가구에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은 52.4%가 서류를 제출한 반면,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은 28.1%만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수집율에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I-21> 소득 증빙서류 수집율

구분		해당 case	제출건수	수집율(%)	[참고] 2차년도 수집율
전체 유효표본 가구		4,830	1,485	30.7	25.7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772	1,485	53.5	46.9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	2,568	1,345	52.4	46.6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873	245	28.1	26.4

※ case 숫자는 가중치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치임.



Ⅲ. 조사내용

Ⅲ. 조사내용

1. 조사표 구조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용과 가구원 개인용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용 조사표는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잘 알며 주로 관리하고 있는 가구원 한 명이 응답해야 하며, 가구원용 조사표는 1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조사대상이 된다. 하지만, 특정 가구원이 다른 가구원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어도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패널 조사 3차년도 조사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항목 중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올해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표 Ⅲ-1> 조사표의 구조

가구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표
[표지] 가구 적격 여부 확인	[표지] 가구원 적격 여부 확인
A. 가구 기본 현황	1. 경제활동
B. 주택, 종부세 환급금,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유 현황	2. 연금/보험 소득
C. 가계 지출 현황	3. 2009년 연간 소득
D.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이전소득	4. 보험 관련 지출 현황
E. 복지현황	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F. 자산 및 부채 현황	6. 소득세 유형 및 소득 공제 현황
G. 유가환급금	
H. 근로장려금	
I.환급세액	
J. 유가보조금	

2. 가구용 조사표 내용

가. 가구 현황

가구의 일반 현황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가구원의 이름, 출생년월, 성별,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원 변동 사유, 학력, 직업 등을 조사한다.

본 조사에서 가구는 2009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함께 살았던 가족으로 정의한다. 가구원은 가족과 함께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6개월 이상 같이 생활한 사람으로 정의했고,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한 경우는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가구원으로 인정하였다.

2009년 6월 이전 분가한 가구는 정식 표본가구로 인정하여 새로운 가구의 경제활동을 모두 조사하지만, 2009년 7월 1일 이후 분가한 가구원에 대해서는 2009년에 원 가구에서 6개월 이상 동거하였기 때문에 원 가구의 가구원으로 분류되지만, 차후년도를 대비하여 간단한 간이 조사만 진행하기로 했다.

나. 주택 및 자동차 보유 현황

주택 현황에서는 주택 형태, 거주 형태, 주택 가격, 전월세금, 면적, 거주 주택 외 추가 주택 보유 여부 등을 조사했다. 2009년 한 해 동안 주택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보유기간, 매매차익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또한 자동차 항목에서는 자동차 보유 현황과 자동차 보험료 납부액, 월평균 차량 유류비 항목을 측정했으며, 오토바이 항목의 측정 문항은 자동차와 동일하다.

다. 가계 지출 현황

가구에서 지출한 주거비, 식료품 구입비, 주류비, 담배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 가전제품 구입비, 통신장비 구입비, 가구 구입비, 의류 및 잡화 구입비, 화장품 및 이·미용비, 여행·스포츠 레저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경

조사비, 기부금을 조사했다.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2009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지출 금액을 조사했고, 특별한 상황에서 1회성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 비용은 2009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지출 총액을 측정했다.

라. 개인이전지출 및 개인이전소득

개인과 개인 간에 주고받는 금액에 관한 질문으로 가구원이나 친척, 지인 간에 오고 간 돈의 흐름을 조사했다. 그러나 함께 사는 부부간에 주고받는 금액은 가구 전체의 지출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비나 정기적인 용돈 등 출처가 명확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했다.

비가구원과 주고받는 이전지출이나 소득은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용돈, 생활비, 학비 등을 정기성 총액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정기성 총액을 포함하여 생일이나 명절 등에 1년 동안 한 두 번씩 주고받은 금액은 모두 합쳐 연간 총액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이밖에도 경조사 지출과 소득,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등도 이전지출·소득 항목에서 함께 조사했다.

마. 복지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고,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기간과 월평균 수급 금액, 연간 수급 총액을 조사했다. 이밖에도 65세 이하의 고령층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경로연금, 노인교통비와 농어업정부 보조금, 자녀 양육 지원금, 장애수당, 보훈 수당 등의 정부 지원금의 수혜 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내용은 수급기간, 월평균 수급 금액, 연간 수급 총액이다.

바. 자산 및 부채 현황

재정패널 조사에서 자산과 부채는 명의를 기준으로 했다. 즉 해당 가구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저축이나 예금, 부동산, 부채 등은 모두 해당 가구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본인의 영업이나 사업을 위해 부채를

진 경우에도, 부채가 가구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채 현황에 포함된다.

자산이나 부채는 조사 시점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2009년 12월 31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원금 외에 이자나 배당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자산(저축성 보험 등)의 경우에는 적립한 원금을 기준으로 했다.

금융자산은 예적금, 펀드, 채권, 주식,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빌려준 돈, 기타 금융자산으로 구분했다.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서는 주택의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주택 이외 건물의 전세 및 월세 보증금,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의 시가총액, 주택 이외 보유 부동산, 보유회원권, 농기계/가축, 선박/건설중장비, 기타 자산 등을 조사했다.

부채현황은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금융기관 대출, 돌려 주어야 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 기타 보증금으로 구분했다. 이때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사. 환급금 및 정부보조금 현황

일상적인 소득과 지출 외에 정부로부터 환급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연말정산환급금, 종합소득세환급금, 유가보조금으로 구성했다.

3. 가구원용 조사표 내용

가. 조사 적격 가구원 선정

가구원용 조사표는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2009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된다. 이 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100만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금/보험소득, 기타 소득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라 할지라도 연금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을 경우 조

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이 유일한 소득원인 가구원은 이전소득이 존재하나,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전혀 없으므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 경제활동

2009년 한 해 동안 소득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 시점(2010년 5월 1일 기준)의 소득활동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근로형태는 어떤 것인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구직 여부와 그 사유를 함께 조사하였다.

다. 연금・보험 소득

2009년 한 해 동안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나 민간연금・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있는지 조사했다. 각 연금・보험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표 III-2> 연금・보험 소득

구분	종 류
사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연금
민간연금・보험	퇴직연금,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 연금보험, 보장보험, 저축보험, 자동차보험

다. 2009년 연간 소득

연간 소득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매출 및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가구 외부의 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정부지원 현금/그 외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단, 연금・보험 소득은 이미 앞 문항에서

조사했으므로 중복을 피하고자 연간 소득에서는 제외해 조사했다.

라. 연금·보험관련 지출 현황

2009년 한 해 동안 사회보험이나 민간연금·보험에 납부한 금액을 조사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납부 금액,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고용 보험료 납부 금액과 함께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이나 보험에 연간 납부한 금액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연금과 보험은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인정하였다.

마.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구원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2009년 한 해 동안 소비·지출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조사했다. 이때 개인용 법인카드는 제외했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나 대출을 받은 금액, 카드론 금액,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제외했다.

한편, 개인 사업자가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영업용/사업용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지출을 위해 사용한 금액과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구분해 가구가 직접 소비 지출한 금액만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바. 소득세 유형 및 소득공제 현황

가구원용 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 중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거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현황과 결정세액을 추가로 조사했다. 각각에 대해 조사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 소득공제항목

구분	공제 항목	세액
근로소득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장례/이사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 장기 주식형 저축, 기타 공제	결정세액
종합소득자	연금보험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장기 주식형 저축, 표준 공제, 기타 공제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은 측정이 쉽지 않고, 가구 조사표와 가구원 조사표의 결과를 토대로 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4. 3차년도에 추가된 내용

가. 가구 조사표

1) 주택 현황

현재 거주 및 보유주택의 소유자 명의를 추가로 조사했다.

2) 이전지출과 이전소득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간의 이전소득 항목에서는 용돈과 학비 등은 제외했다. 그리고 가구 외부에서 받는 이전소득이나 이전지출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주고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성별, 연령, 학력, 소득유무 등)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받은 상속 현황에 대해서 조사했다.

3) 정부 환급금 항목 추가

2009년부터 추가된 유가환급금, 종부세 환급금 외에도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환급받은 세액, 유가보조금의 금액과 사용 용도를 추가로 조사했다.

나. 가구원 조사표

가구원 조사표에서는 조세제도 형평성 및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 문항이 신설됐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질문 방식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달라졌다.



Ⅳ. 실사진행과정

Ⅳ. 실사 진행 과정

1. 실사 준비 과정

가. 조사표 설계

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2009년에 실시한 2차년도 조사표를 골격으로 하였다. 먼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조사표 초안을 설계하여 추가나 변경이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고, TNS에서 조사 진행을 고려해 수정할 부분을 제안했다. 그런 다음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최종 조사표를 확정했다. 확정한 조사표는 관련 학계의 자문 교수로부터 최종 감수를 거쳤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 응답자의 조사 친숙도가 다소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전년도에 간략화 되었던 질문을 구체화하고, 전년도 조사 결과 나타난 응답자나 면접원의 조사표 수정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보다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나. 조사원 선발 및 교육

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에 최초 투입된 조사원은 모두 90명이다. 전년도 재정패널 조사에 참여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조사원 85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고, 타 패널조사 또는 고난이도의 조사 경험이 풍부하여 재정패널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5명의 신규 조사원이 투입되었다.

<표 Ⅳ-1> 지역별 투입 면접원 수

지역별	관할 지역	3차년도 투입 면접원	1차년도 재정패널 유경험자	신규 충원
서울 본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38	38	-
부산 지사	부산, 울산, 경남	18	17	1
대구 지사	대구, 경북	10	10	-
광주 지사	광주, 전남, 전북	14	12	2
대전 지사	대전, 충남, 충북	10	8	2
총계		90명	85명	5명

조사원 교육은 기본적으로 거점 지역에서 1일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교육에 불참한 조사원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추가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년도에는 첫 조사인만큼 조사원의 조사에 대한 친밀도 및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집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차년도 조사부터는 조사원이 한 차례의 조사 경험으로 이미 조사에 대한 적응이 되어 있고, 조사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 조사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지역별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원 교육은 TNS RI 사회조사본부의 연구원들이 직접 담당하였으며, 한국조세연구원의 담당 연구진이 전 교육 과정을 참관하며 조사 내용에 대한 질의에 직접 답변하였다.

지역별 교육은 4월 26일 서울 권역, 4월 27일 부산 및 대구 권역, 4월 28일 대전 및 광주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모든 지역 교육에서 교육진행자를 동일하게 지정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통일성을 꾀했다. 또한 교육 이후에는 각 지역별 교육 과정에서 나온 의문사항이나 수정지침을 조사지침서 및 지역별 실사감독관을 통해 전달하였다.

<표 Ⅳ-2> 교 육 내 용

주 제	세부 내용
조사 목적 및 의의 공유	재정패널 조사의 목적과 의의, 중요성 등 조사배경에 대한 교육
	한국조세연구원 소개
설문구조의 이해	조사대상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개념 이해, 조사 대상 가구 판별
	설문 문항의 구조와 내용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소득공제 관련 교육
패널 유지 및 면접조사 능력 향상	패널 유지율 제고에 대한 사명감 고취
	이사 가구 및 분가 가구 조사 요령
	조사대상가구 접촉요령, 면접 진행요령 등 면접조사기법

지역별 교육에 불참한 면접원에 대해서는 보충 교육을 진행했다. 보충 교육은 5월 10일에 걸쳐 TNS 본사에서 실시되었으며, 본 교육과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 가구 대상 안내편지 및 공문발송

조사 대상 가구에는 조사 시작 일주일 전인 4월 30일에 조사에 대한 안내편지 및 한국조세연구원의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안내편지와 공문에는 조사에 대한 의의 및 3차년도 조사 참여 독려, 소득 증빙서류 제공 준비와 그 혜택을 상기시켜 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라. 조사 도구 제작

재정패널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응답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사 도구를 제작해서 활용했다.

① 조사표 : 가구용 조사표와 가구원용 조사표 두 종류의 설문지 제작

② 조사원 신분증·명함 :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해 제작. 신분증에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직인과 조사원의 사진을 인쇄하여 응답자가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③ 홍보물 : 재정패널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
④ 비밀보장각서 : 조사가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된다는 확인을 조사원이 서명하여 응답자에게 제출
⑤ 정부기관 공문 : 한국조세연구원과 TNS 명의의 공문 및 기획재정부의 협조 공문을 발급받아 응답자에게 열람토록 함.
⑥ 조사지침서 : 조사진행 지침과 용어에 대한 해설을 명기
⑦ 가구원 조사표 작성 가이드 : 가구원 조사표 작성을 돕기 위한 가구 배포용으로 활용
⑧ 소득공제 서류 양식 : 응답자의 소득공제 내역을 필사하는 경우를 대비해 빈 양식을 인쇄 배포

마. 기타 조사 홍보 및 안내

1) 080 안내전화(수신자부담 무료전화) 설치 및 운영

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조사 대상 가구의 문의에 곧바로 응대하기 위해 수신자 부담 무료전화를 설치하고 상담전화는 TNS RI의 담당자가 직접 수신하여 응대했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안내

한국조세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pf.re.kr)와 TNS의 홈페이지(www.tnsglobal.co.kr)에 조사 안내문을 올려 조사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TNS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패널이 이사를 할 경우 그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패널 관리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실사 품질 제고 방안

가. 재정패널 조사 유경험 조사원 위주 투입

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에 투입된 조사원 90명 중 94.4%에 해당하는 85명이 전년도 조사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조사원들은 이미 재정패널 조사를 경험한 만큼 조사 내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조사원이 전년도에 자신이 담당했던 패널을 방문함으로서 응답자로 하여금 조사원에 대한 신뢰감과 친숙도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는 패널 유지율 제고 및 솔직한 응답을 바탕으로 한 측정의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한 노력

패널조사의 특성상 높은 패널 유지율은 조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종단면적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 패널 유지율 제고가 본 조사의 실사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1) 3차년도 실사 준비 기간

패널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2차년도 실사 종료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패널 관리 활동을 진행했다. 응답 내용 확인을 위한 콜백 과정에서 조사 참여 감사 인사와 향후 조사 참여 당부 및 일부 이사 가구에 대한 주소 확인을 병행했다.

또한 2009년 말에 달력을 발송하였으며, 2010년 설 명절을 앞두고 연하장을 발송했다.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패널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를 진행하여 추첨된 100명의 패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발송하였다. 3차년도 조사를 두 달여 앞두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조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응모시 자신의 주소를 기입토록 하여 또 한 차례 주소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2) 3차년도 실사 진행 과정

실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를 강력히 거절하는 가구 리스트를 파악해 별도의 컨택요원을 투입해 조사 참여를 권유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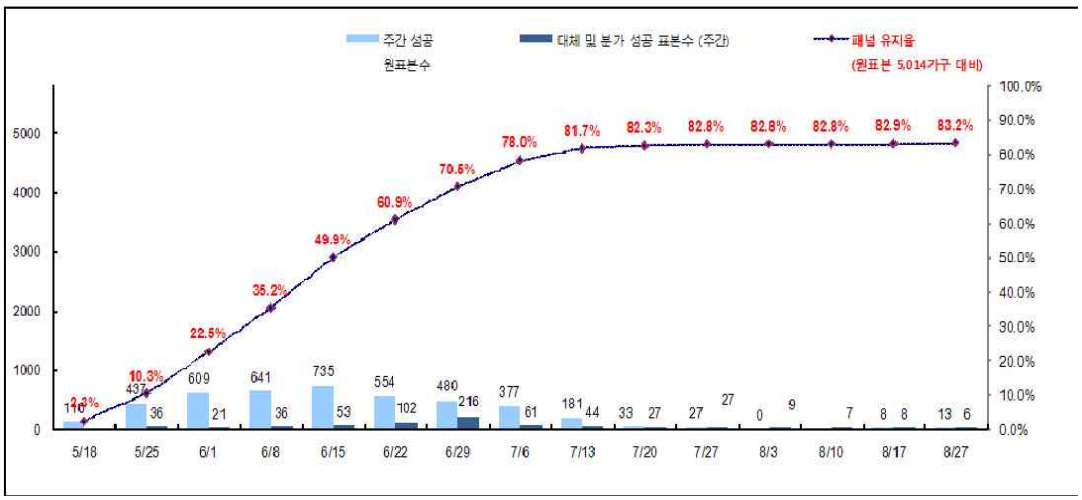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패널가구가 이사를 하고 직접 TNS RI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할 경우, 소정의 사례품을 지급하여 이사가구의 추적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자 했다.

3. 실사 진행 과정

가. 주별 진행 상황

재정패널 조사의 실사는 5월 둘째 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됐다. 당초 8월 초까지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철이 겹치면서 일부 패널과의 약속이 연기되고, 패널 유지율 제고를 위해 재컨택을 지속하면서 실사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

[그림 Ⅳ-1] 3차년도 실사 진행 상황



※ 패널 유지율은 원표본가구 조사 성공률을 의미하며, 산출방식은 패널유지율(A)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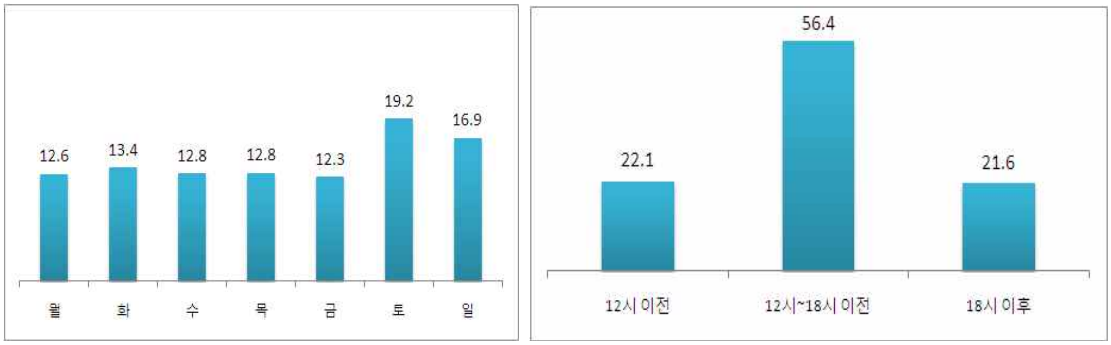
전반적인 실사 진행 상황을 보면, 실사에 돌입하고 3주차인 6월 첫째 주부터 주간 완성 표본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실사 시작 시점에는 우선 조사원이 전화를 통해 패널과의 사전접촉 및 면접약속을 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6월에 접어들면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7월 중순부터는 단순거절 가구에 대한 재설득이 주로 이뤄졌고, 표본가구의 사정으로 조사 시점이 뒤로 밀린 가구에 대한 조사가 주로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주간 진행 표본수가 급감했으나 패널유지율 제고를 위해 끝까지 실사를 마감하지 않았다.

나. 조사 진행 요일 및 시간대 분포

전반적으로 모든 요일이 고르게 분포되었지만,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조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 시간대의 경우 12시~18시 사이가 56.4%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른 아침 시간이나 심야 시간의 경우 응답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어 주로 낮 시간대에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Ⅳ-2] 조사 요일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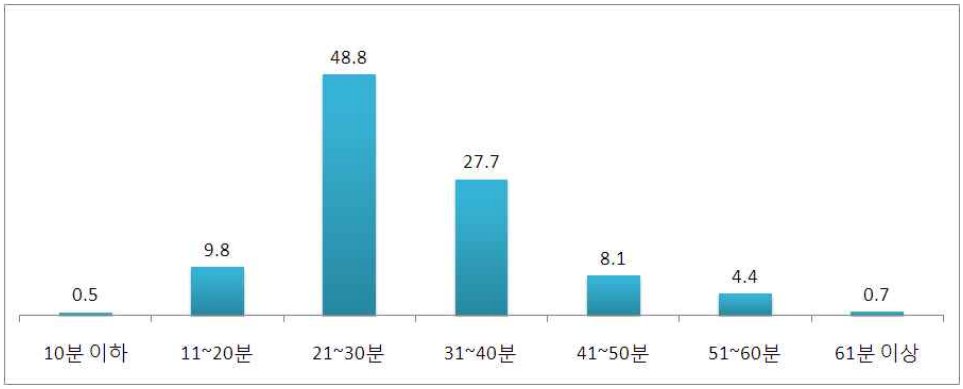


다. 조사 소요 시간

가구 조사표의 평균 조사 시간은 약 33.8분으로 지난 해 평균시간 34.2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시간대별로는 21~30분, 31~40분이 각각 48.8%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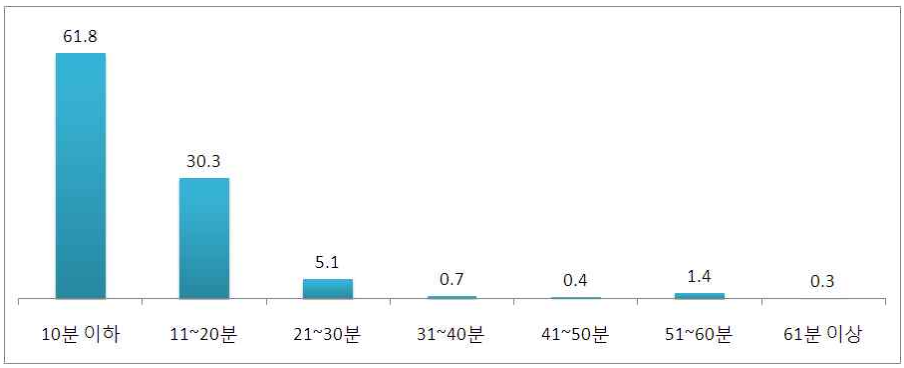
27.7%로 가장 많았다. 다만 조사 소요 시간은 실사 관리 차원에서 조사하는 문항이나 엄밀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Ⅳ-3] 가구 조사표 소요시간(%)



가구원 조사표의 평균 조사 시간은 약 13.5분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납부나 종합소득 신고를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많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조사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그림 Ⅳ-4] 가구원 조사표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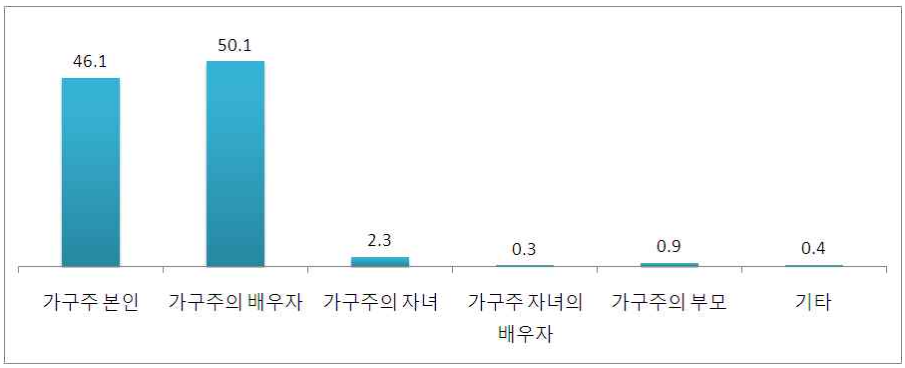
라. 조사 방법

가구 조사표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한 상태에서 조사를 직접 진행한 사례가 99.7%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요청이나 가구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설문지를 유치해서 조사한 경우가 0.3%였다. 유치조사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추가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 가구 조사표 응답자 선정

가구 조사표는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한 경우가 전체 표본의 96.2%로 나타나, 지난해(96.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5] 가구 조사표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바. 가구원 조사표 응답자 선정

재정패널 조사의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사람은 총 7,09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는 실제 소득은 없으나 실사 관리 차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가구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인 소득 가구원 숫자와 조사 성공률은 데이터 클리닝 거치며 달라질 수 있다.

가구원 조사표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응답한 경우가 52.7%였으며, 소득자의

배우자 등 소득을 관리하는 타가구원이 응답한 사례가 47.3%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작년에 비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패널 조사의 가구원 조사표는 가구원 소득활동 상황과 소득과 같은 실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는 대리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을 관리하는 가구원이나 타가구원 명의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가구원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조사원 간담회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조사표 상에는 대리 응답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소득자 본인의 동석 하에 조사가 진행되거나 애매한 질문을 전화를 통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타 가구원이 대신 응답했다고 표기됐다고 해서 조사 품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해당 가구원이 주로 심야에 귀가하거나, 본 조사에 대해 거부감을 보일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타가구원으로부터 대리응답을 받기도 했다.



Ⅴ. 재정패널 표본특성

Ⅴ. 재정패널 표본 특성

1. 조사 결과 분석 기준

가. 표본가구 구분

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표집된 표본가구 수는 4,884개로 1차년도 5,014가구, 2차년도 5,096가구에 비해 표본수가 100~200여개 감소했다. 이는 3차년도 조사부터는 대체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추적조사만 진행했기 때문이다.

최종 표집된 4,884개 가구는 표본의 특성에 따라 크게 7가지 집단으로 구분되고, 각 집단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유효 표본수가 달라지게 된다.

먼저 1차년도 조사에서 표집된 5,014 가구 중 2차년도, 3차년도 연속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총 4,122개 가구이다. 이들 가구는 3개년도 및 2개년도에 걸치는 종단적 분석이 모두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표본집단이다. 그러나 2차년도에 대체표본으로 조사된 620가구 중 3차년도에도 추적에 성공한 575가구 중 원가구와 중복조사되지 않은 573가구는 2개년도(2차~3차)에 걸치는 종단적 분석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2009년도에 탈락했다가 3차년도에는 복귀한 원표본 가구 50개는 2차년도 데이터가 결측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그 중 47개 가구는 이미 대체가구가 조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50가구는 2차년도부터의 2개년도 종단면 분석이나 3차년도 횡단면 분석에서도 유효표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분가가구 137개는 분가 시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해진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 목적에 따라 유효 표본수가 달라지게 되고, 가중치 자체도 다르게 된다.

타 패널조사에서도 조사 차수(wave)가 많아질수록 가중치의 종류도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재정패널 조사에는 대체표본이라는 특수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치 산출 과정이 다소 복잡한 편이다.

<표 Ⅴ-1> 표본 집단과 가중치 종류별 유효표본 여부

표본가구 구분		표본수	가중치 변수		
			3개년도 종단면 가중치	2개년도 종단면 가중치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3년 연속 성공 원표본가구		4,122	○	○	○
1차년도, 3차년도 성공 원표본가구		50			
추적에 성공한 대체 표본가구	원표본 이탈	526		○	○
	2차년도 조사 원표본 중복	2			
	3차년도 조사 원표본 중복	47		○	○
기존 분가가구(08년 6월 30일 이전)		23		○	○
기존 분가가구(08년 7월~09년 6월)		44			○
신규 분가가구(09년 6월 이전)		16			○
신규 분가가구(09년 7월 1일 이후)		54			

나. 가중치 보정

현재 재정패널 데이터에는 종단면·횡단면 가중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종단면 가중치에도 위 표와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따라서 어떤 가중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측정값에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이 최종보고서는 3차년도 조사 결과에 초점을 맞춰 기술했기 때문에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

다. 데이터 입력 과정

재정패널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는 조사표 입력부터 출력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인 서베이크래프트(Surveycraft)를 이용했다. 서베이크래프트

(Surveycraft)는 사전 설계를 통해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조사표 항목에서 허용된 코드나 범위만을 입력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거주형태의 유형을 4가지의 코드로 부여했다면, 그 외의 코드는 입력자체가 불가능하다. 연금저축 공제액도 공제한도 이상은 입력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했다.

두 번째 문항 간 건너뛰기 구조(Skip pattern)가 정확히 지켜진다. 특정 항목에 대해 지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면, 지출 금액 자체가 입력되지 않는 방식이다.

만일 입력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오류가 발생한다면 조사표에 적힌 응답이 잘못됐거나 인풋 요원이 잘못 입력했거나 하는 경우이다. 조사표가 잘못됐다면 입력이 중단되고 해당 조사표는 다시 실사팀으로 되돌아간다. 인풋 요원의 실수였다면 정확한 값을 재입력해야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 건수는 발견 즉시 해결이 되므로 그 발생 빈도를 기록하기 어렵다.

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개요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은 조사로부터 얻어진 데이터 중 잘못 혹은 의심스러운 자료나 표본을 탐지하여 그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조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모든 사회조사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패널조사에서는 데이터 에디팅 작업을 통해 미완성 응답패턴이나 조사 도구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차후년도 조사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수정 작업은 오히려 조사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연구자와 실사관리자가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직접 담당할 필요가 있다.

재정패널 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기반해 이루어 졌다.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 클리닝 지침은 주로 재정패널 조사 지침서의 내용에 기반했다.

① 타당성 : 질문에 맞는 응답인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응답인가?

② 일치성 : 응답이 논리적, 수리적 관점에서 일치한가?

③ 응답분포 : 통상적인 분포를 벗어나는 특이한 값이 조사되었는가?

마. 클리닝관련 데이터 처리과정

재정패널의 클리닝관련 데이터 처리 과정은 조사표의 작성부터 시작하여 조사표 응답 및 에디팅, 데이터 입력 및 코딩, 조사표 검토, 프로그래밍에 의한 데이터 클리닝, 클리닝 내용 피드백의 절차를 거쳤다.

[그림 Ⅴ-1] 재정패널 조사 데이터 클리닝 진행 과정

클리닝 과정	비표본오차 최소화 진행 내용
1. 조사표 배부 및 조사	주요 항목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
⬇	
2. 조사표 회수 (현장 내용 검토)	1차 내용 검토(조사원) 2차 내용 검토(슈퍼바이저)
⬇	
3. 조사표 입력	Surveycraft 이용 · 사전 설계를 통해 입력과정 오류 예방 · 문항 간 Skip pattern 오류 예방
⬇	
4. 조사표 회수 (조세연 전수 검토)	측정 오류 점검 · 조사 항목 기입 누락 확인 · 항목 간 연관 관계 검토 · 조사표에 수기 기록된 비 합리적인 응답 검토
⬇	
5. 프로그램 점검(조세연) 오류 재조사 및 수정	코딩 오류 및 논리 점검 · deterministic edits · critical editing · query editing · macro editing

첫째, 재정패널 데이터의 1차적인 quality는 설문에 대한 조사원과 응답자의 이

해 정도,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조사원과 응답자간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응답에 대한 에디팅 규칙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사원 지침서에 수록하였으며 거점 지역에서 1일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교육에 불참한 조사원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조사원이나 응답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조사원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 조사원의 경험미숙과 훈련부족 및 자료수집 과정상의 문제점, 응답자로 인해 발생되는 응답오차를 줄이기 위함인데, 이러한 과정은 조사표 용어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조사표의 설계 및 데이터 수집도구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때 수집되는 개선 데이터는 향후 조사에서 응답자 부담과 무응답률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현장에서 회수된 조사표는 각 지역 슈퍼바이저가 점검하여 비합리적인 응답을 검색하게 되어 있다. 이는 자료처리오차(tabulation errors)를 줄이기 위함이며 이 단계에서의 에디팅은 조사표들을 다음 단계로 계속 넘겨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조사표를 수용, 거부, 재조사 등으로 분류하여, 수용할 조사표는 수용하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는 조사표는 처리를 중단하며, 추가 점검이 필요한 조사표는 추가로 점검을 실시한다.

둘째, 조사표 인풋 작업은 조사표를 컴퓨터에 데이터화 하여 입력하는 과정이며 부호화, 코딩, 자료입력 등의 과정에서 주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더블 펀칭을 시행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재정패널의 경우는 특수하게 설계된 코딩 소프트웨어로 자동 실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경우 항목 응답이 정해진 범위에 있는지 혹은 지정된 다른 값들과 불일치 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

셋째, 조사표 검증은 현장 실사 업체에서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정패널의 경우 아직 구축 단계이므로 조사 처리과정과 조사 자료의 이해 및 응답자 파악, 오차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설문 문항에 대한 연구진의 이해를 위해 인풋이 완료된 설문지는 전수 연구원으로 전달되어 항목별로 측정 오류를 점검하였다. 이러한 현장 에디팅(field edits) 작업에 연구진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료 수집 수단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오류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조사원이 기입한 것을 해석하여 오류 패턴이 있을 경우 조사 지침서를 수정, 재교육할 필요가 있는지를 시기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타당성 에디팅(validity edits)과 간단한 일관성 에디팅을 하게 된다.

넷째, 프로그래밍에 의한 클리닝 작업은 현장 에디팅(field edits)과정을 통해 오류를 수정했지만, 미처 잡지 못한 오류나 입력 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자동화 방법으로 점검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프로그래밍에 의한 클리닝 작업을 통해 조세연구원 및 tns 연구진이 발견한 문제 data에 대해서는 다시 실사 관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실사 관리자는 먼저 조사표의 응답을 확인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응답자에 대한 재조사(call back)를 진행했다. 연구진의 data cleaning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2> 데이터 클리닝 관련 검토내용

- ㅇ 지난해 가구원 정보와 일치 여부
- ㅇ 각 문항별 최대값, 최소값 확인 후 이상 유무 검토
- ㅇ 전반적인 지출 수준이나 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수준 이상치 검토
- ㅇ 금액의 단위와 월평균·년평균 기준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확인
- ㅇ 가구원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수준간 타당성 체크
- ㅇ 연관되어 있는 앞뒤 문항간 로직 체크 (부동산 소득과 보유 여부 등)
- ㅇ 연금, 소득공제액 등 산출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이상치 확인

연구진 검토과정에서 이상치로 판정했으나 조사표 확인 및 응답자 재조사 과정을 통해서도 일관된 답변이 나올 경우에 기본적으로 조사된 측정치를 신뢰했다. 소득이나 지출은 신고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가구 자산 역시 명의와 실소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는 이상치로 판정했으나 재확인 결과 유효 응답으로 인정된 사례도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응답자가 일부 소득·지출 내역을 누락했거나 내용을 부풀리거나 축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잘못된 측정치가 아닐 경우에는 표본가구의 응답을 기준으로 data를 처리했다.

2. 표본 가구의 구성

본 조사에서 가구의 개념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비동거를 했더라도 대학원생을 제외한 학업만을 목적으로 분가한 초중고 및 미혼의 대학생은 가구원으로 인정된다. 단,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나 기러기 아빠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표 Ⅴ-3>은 3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수 추이를 보여주며, 각 연도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개년도 조사에서 가구원수가 4명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로 각각 3명, 2명, 1명, 5명 순으로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명과 4명인 가구가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1명 또는 3명인 가구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3> 연도별 가구원수 추이

단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2007년	16.7	23.3	23.8	27.1	6.9	2.1
2008년	17.2	22.6	24.7	26.7	6.9	1.9
2009년	16.8	21.8	25.6	26.6	7.2	1.9

※ 각 연도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재정패널조사는 기본적으로 가구설문에서 가구원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구주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표 Ⅴ-4>와 같이 가족구성의 형태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가구구성 형태 변화 추이의 결과값은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크게 1인 가구, 핵가족가구, 비핵가족가구로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분석을 해 보았다. 여기서 핵가족가구의 구성은 부부만 사는 경우,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한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구성은 부부단독으로 구성된 가구와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부부단독의 가구는 2007년에 비해 2009년에서 약 2.5% 정도 감소하였고, 부모 및 한부모 미혼자녀는 2.5% 정도 증가한 것을 보여 가구 구성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4>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단위(%)	핵가족가구			1인가구	비핵가구
	부부단독	부모+미혼자녀	한부모+미혼자녀		
2007년	17.1	46.8	6.1	16.7	13.3
2008년	15.0	48.6	6.4	16.7	13.3
2009년	14.6	49.3	6.6	16.1	13.4

※ 각 연도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분석함.
※ 핵가족 가구구분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참고.

3. 표본가구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표본가구의 가구주 특성은 각 년도별 횡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본고에서 1차년도와 2차년도 결과는 2차년도 조사의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인용했음을 밝혀 둔다. *재정패널조사에서 가구주는 호주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뜻한다.* 참고로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한다.

가.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

가구주가 남자인 가구가 77.8%로 절대 다수였으며, 연령대는 3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이하의 가구주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3.7%에 그쳤다. 50대와 60세 이상 가구주는 2차년도 자료보다 3차년도 자료에서 각각 약 1.6%, 약 1%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대 이하, 40대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비해 가구주의 연령대가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의 흐름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표 Ⅴ-5>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2007년	78.0	22.0	6.3	22.7	26.7	20.5	23.8
2008년	77.8	22.2	5.3	22.8	26.2	21.3	24.3
2009년	77.8	22.2	3.7	23.6	25.8	22.1	24.8

나. 가구주의 학력

가구주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대학(전문대) 재학/졸업 등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3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재학/졸업의 비중이 33.5%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자 및 중학교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학과 대학원 학력의 가구주는 약 1% 정도의 차이의 변화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과거 조사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Ⅴ-6> 가구주의 학력

단위(%)	미취학 (안받음)	중학교 재학/졸업 이하	고등학교 재학/졸업	전문대·대학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2007년	5.2	20.9	34.8	35.6	3.5
2008년	5.5	20.3	33.8	36.2	4.2
2009년	4.1	20.6	33.5	37.6	4.2

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재정패널조사에서는 먼저 직업을 질문하고 2009년 12월말 기준 직업이 무직·퇴직·전업주부·학생이 아닌 경우에만 종사상 지위를 질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표 Ⅴ-7>에서 보듯이, 가구주 중에는 임금근로자가 47.2%, 일용근로자가 7.6%로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2.4%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2007년에 비해 약 2.9%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상지위에 해당되지 않는 구성인 무직자, 주부, 학생 등의 비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Ⅴ-7>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단위(%)	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무직//주부/학생 (종사상 지위 해당 없음)
2007년	44.3	8.7	23.1	4.6	0.4	18.9
2008년	45.5	7.8	22.1	4.8	0.7	19.1
2009년	47.2	7.6	22.4	4.5	0.5	17.6

라. 가구주 변경 여부

<표 Ⅴ-8>은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가구주가 변경된 가구가 있었는지 조사한

표이다. 2008년과 2009년 한 해 동안 가구주가 변경된 가구는 각각 2.9%, 3.1%로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가구주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변경사유에서는 2008년에는 경제적사유가 가장 큰 사유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2009년에는 가구원 전출입으로 인한 가구주 변경이 많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8> 가구주 변경 여부

단위(%)	변경 여부		변경 사유			
	변경됨	변경되지 않음	경제적 사유	사망	가구원 전출입	기타
2008년	2.9	97.1	18.6	5.1	9.6	66.7
2009년	3.1	96.9	13.3	6.6	20.2	59.8

4. 표본가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표본가구의 가구원 특성은 각 연도별 횡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는 2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인용했음을 밝혀 둔다.

가. 가구원 수 및 자녀수

3차년도 횡단면 분석시 유효표본 가구 4,778개에 속한 가구원 수는 총 14,941여명으로 가구 당 평균 가구원 수는 2.9명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조사 기준 년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만을 가구원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2차년도 조사부터는 학업 목적으로 분가한 초·중·고등학생이나 미혼의 대학생은 따로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구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밖의 경우에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함께 살게 된 가족은 간단한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했으나 가구원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2차년도 조사 당시 가구

원에 포함되었으나 결혼이나 직장 등으로 분가한 가족은 마찬가지로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했으나 가구원이 아닌 것으로 처리했다.

3개년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인 가구 수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3인 가구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Ⅴ-9> 가구원의 수

단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2007년	16.7	23.3	23.8	27.1	6.9	2.1
2008년	17.2	22.6	24.7	26.7	6.9	1.9
2009년	16.8	21.8	25.6	26.6	7.2	1.9

<표 Ⅴ-10>은 자녀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녀수가 0명인 가구는 39.6%에서 35.8%로 약 3.8%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녀수가 1명, 2명인 가구의 수가 다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Ⅴ-10> 자녀수

단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2007년	39.6	23.8	31.0	5.2	0.5	0.02
2008년	37.3	25.3	31.4	5.6	0.4	0.05
2009년	35.8	25.7	32.5	5.5	0.5	0.05

나.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가구원 중 남녀의 비중은 거의 비슷했으며, 연령대별 분포도 고르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약 51% 정도로 남성보다 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비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 이하의 연령대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30대, 40대, 50대, 60대는 1% 이내로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19세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30대와 40대의 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Ⅴ-11>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7년	48.5	51.5	26.4	11.7	17.8	17.0	11.9	15.2
2008년	48.5	51.5	25.5	12.2	17.4	16.9	12.6	15.4
2009년	48.2	51.8	25.6	11.2	18.0	16.5	13.2	15.5

다. 가구원의 학력

전체 가구원 중 대학(전문대) 재학/졸업 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30.5%, 고등학교 재학/졸업의 학력을 지닌 가구원이 28.5%로 나타났다.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층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표 Ⅴ-12> 가구원의 학력

단위(%)	미취학 (안 받음 포함)	중학교 재학/졸업	고등학교 재학/졸업	전문대·대학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2007년	12.8	28.0	29.3	28.0	1.9
2008년	12.4	26.9	28.9	29.5	2.3
2009년	11.9	26.5	28.5	30.5	2.5

라.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가구원 중 무직/주부/학생 등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7.4%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24.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무직자가 줄어들고,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Ⅴ-13>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단위(%)	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무직/퇴직 /주부/학생
2007년	22.3	4.5	9.4	1.9	1.9	60.1
2008년	23.7	3.8	9.4	2.0	1.9	59.3
2009년	24.5	4.0	9.7	1.9	1.6	57.4

마. 취업 가구원 수

가구 내에 취업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가 57.3%로 가장 많았다.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는 1.2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에서 한 두 명의 가구원이 취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는 비취업자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라 무급가족 종사자를 취업자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 분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Ⅴ-14> 취업 가구원 수

단위(%)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2007년	14.2	63.3	19.9	2.3	0.2
2008년	14.4	62.0	20.8	2.6	0.3
2009년	12.4	57.3	26.8	3.1	0.4



Ⅵ. 가구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

Ⅵ. 가구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

가구 조사표는 가구원 현황과 주택·자동차 현황, 연간 소비 지출, 자산 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 지출 금액은 지출의 특성에 따라 월평균 금액과 연간 금액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 등은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기초분석보고서에 인용한 수치는 횡단적 가중치를 기준으로 했으며 평균값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결측된 사례는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하고 분석했다.[4)]

1. 주택 현황

가. 주택 거주 형태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주택 형태보다 주택 점유 형태나 주택 시가 총액·전월세 보증금을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사에서는 단독주택을 1인 소유의 독립된 주택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분류했다. 참고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일반 단독주택과 함께 다가구주택과 영업겸용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정의한다.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 건물로 연면적이 660m^2(200평)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점포 용도 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부분이 같거나 더 많으면 단독주택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세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표 Ⅵ-1>은 연도별 주택 거주형태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3차년도 조사에서 주택 형태를 보면 아파트의 비중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단독주택이 31.8%, 연립주택이 15.0%로 나타났다.

4) 현재 재정패널 데이터에는 종단적·횡단적 가중치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가중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측정값에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있으므로 가중치 적용 유무 및 유형에 따라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사회조사에서는 조사 진행 과정의 에러로 인해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에러는 응답자의 오해나 회피, 면접원의 오류, 인풋 과정의 오류, 관리 과정의 오류에 의해 발생하며, 논리성 체크나 응답자 재조사와 같은 사후 확인 과정을 거쳐 교정되고 보완된다. 1차 데이터 제출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오류를 걸러내기 위한 클리닝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반영한 베타 버전 수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분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클리닝 작업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본고에 수록한 내용 중 일부가 수정·보완될 수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원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의 비중은 다른 형태의 주택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Ⅵ-1> 연도별 주택 거주 형태 추이

단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원룸)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기타
2007년	33.1	43.7	14.0	3.7	2.9	2.6
2008년	32.4	43.8	15.3	3.8	2.8	1.9
2009년	31.8	44.9	15.0	2.5	3.1	2.7

나. 주택 점유 형태

<표 Ⅵ-2>는 연도별 주택 점유 형태를 나타낸다. 2009년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54.5%), 전세(2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보증부 월세는 13.1%, 무보증 월세는 2.0%로 나타났다. 2007년이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점유 형태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전세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Ⅵ-2> 연도별 주택 점유 형태

단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기타
2007년	57.9	22.6	13.3	2.1	4.1
2008년	55.7	24.4	13.7	3.0	3.2
2009년	54.5	24.5	13.1	2.0	6.0

다. 주택 가격 및 전월세 비용

<표 Ⅵ-3>는 각 차수별 주택 가격 및 전월세 비용을 나타낸 표이다. 주의할 점은 주택 가격 및 전월세 비용에서 1차년도 조사에서는 자가 주택시가 총액 및 전월세 보증금을 합하여 조사하고 있어 결과 도출시 주의해야한다는 점이다. 2007년~2009년에 전체가구 평균 금액을 보면, 자가 주택 시가 및 전월세 보증금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월세비용(월간)에서도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9년에 자가 주택의 경우 평균 시가총액은 1억9천35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 가구는 평균 5,443만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3> 거주 주택 가격 및 전월세 비용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자가 주택 시가 총액	2007년	57.9	20008.8	11,057.0
	2008년	59.2	18,964.9	10,451.9
	2009년	54.5	19,357.2	10,488.4
전월세 보증금	2007년	35.8	5,064.2	1,811.3
	2008년	33.8	5,155.2	1,960.6
	2009년	37.6	5,443.7	2,043.2
월세 비용(월간)	2007년	19.5	26.4	4.3
	2008년	19.9	27.2	4.4
	2009년	21.0	21.1	4.3

라. 주택 구입 및 매각

<표 Ⅵ-4>는 연도별 주택 구입 및 매각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매입 금액과 주택매각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매각한 주택의 최초 매입가격과 주택매각금액의 차이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각한 사례는 5% 미만으로 극소수로 나타났다. 주택을 매각

한 가구는 평균 약 8천1백6십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Ⅵ-4> 주택 구입 및 매각 금액

항 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주택 구입 금액	2007년	4.1	18,141.5	724.9
	2008년	4.1	18,513.2	769.1
	2009년	4.0	19,297.6	775.7
주택 매각 금액	2007년	2.2	16,727.9	345.4
	2008년	2.4	18,027.0	388.1
	2009년	2.6	17,856.4	454.7
매각 주택 최초 매입가격	2007년	2.2	10,580.8	215.9
	2008년	2.4	11,449.8	238.5
	2009년	2.6	11,137.5	272.8

마. 종부세 납부 및 환급

종부세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조사는 2차년도 조사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2차년도 조사에서 종부세 납부금액에 대한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2009년에는 종부세를 납부한 가구가 전체의 1.8%로 나타났으며 종부세 환급금을 수령한 가구는 0.6%로 매우 적었다. 종부세 환급금 수령 가구의 평균 수령액은 69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종부세 납부 및 환급은 200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Ⅵ-5> 종부세 납부 및 환급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종부세 납부	2008년	4.8	-	-
	2009년	1.8	148.0	0.8
종부세 환급	2008년	1.9	188.4	2.3
	2009년	0.6	69.4	43.6

※ 1차년도 조사는 종부세 납부 및 환금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음.
※ 2차년도 조사에서는 종부세 납부금액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음.

2. 자동차 보유 현황

가. 자동차 보유 현황

<표 Ⅵ-6>은 연도별 자동차 보유 대수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자동차 대수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2007년에 비해 2008년도에서는 자동차를 2대 보유하는 가구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2009년도에서는 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63.2%로 나타났고, 2009년도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1대를 보유한 가구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Ⅵ-6> 자동차 보유 대수

단위(%)	없음	1대	2대	3대 이상
2007년	39.2	51.7	8.5	0.6
2008년	38.4	51.0	10.0	0.6
2009년	36.8	51.4	10.7	1.1

<표 Ⅵ-7>은 연도별 자동차 유지비용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9년도에서는 전

체 중 63.0% 가구가 평균 69만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보험료 지출은 2008년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간 유류비 중 LPG 지출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으며, 휘발유와 경유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Ⅵ-7> 자동차 유지 비용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자동차 보험료(연간)		2007년	61.3	70.0	42.1
		2008년	62.5	68.8	41.5
		2009년	63.0	69.4	43.6
유류비 (월간)	휘발유	2007년	37.6	25.5	9.3
		2008년	39.8	25.3	9.7
		2009년	39.4	24.5	9.7
	경유	2007년	18.6	27.8	5.0
		2008년	22.1	32.2	6.7
		2009년	18.9	31.9	6.9
	LPG	2007년	6.8	19.8	1.3
		2008년	9.0	23.5	2.1
		2009년	7.5	28.9	2.5

※ 1차년도 조사에서는 유류비의 세부구분을 하여 설문조사하지 않았지만 설문지상에 세부기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변수를 구성하였다

.

나. 오토바이 보유 현황

<표 Ⅵ-8>은 오토바이 보유대수를 나타낸 표이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오토바이 보유현황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전체의 95.6%로 절대 다수로 조사됐다. 그리고 2008년과 2009년에서 오토바이 보유에 대한 변화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표 Ⅵ-8> 오토바이 보유 대수

단위(%)	없음	1대	2대	3대 이상
2008년	95.7	4.2	0.1	0.02
2009년	95.6	4.3	0.0	0.0

※ 1차년도 조사에서는 오토바이 보유현황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음.

<표 Ⅵ-9>는 오토바이 유지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동차보유에 비해 오토바이를 보유한 가구는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 비해 2009년에서는 그 변화의 정도가 작았다. 월간 유류비 지출에서 휘발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그 금액은 크지 않았다.

<표 Ⅵ-9> 오토바이 유지 비용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오토바이 보험료(연간)		2008년	2.1	18.6	0.4
		2009년	2.0	18.4	0.4
유류비 (월간)	휘발유	2008년	3.9	5.4	0.2
		2009년	4.1	5.0	0.2
	경유	2008년	0.8	4.0	0.03
		2009년	0.3	6.1	0.0

3. 가구 소득 현황

재정패널 조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거주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과대표집을 진행했기 때문에, <표 Ⅵ-10>에서 보듯이 가중치 보정 전에 고소득층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의 가구 월간 소득 구간을 살펴보면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61.9% 정도로 나타났고,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8.6%로 조사됐다. 추가적으로 2007년에 비해 600만원 이상 고득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Ⅵ-10> 가구 월간 소득 구간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구 분	weighted		weighted	unweighted
100만원 미만	19.3	21.7	20.4	21.4
100~199만원	22.1	21.9	21.3	20.0
200~299만원	35.7	20.1	20.2	18.6
300~399만원		14.1	14.4	14.0
400~499만원	15.2	8.1	9.0	9.4
500~599만원		5.3	6.1	6.4
600~699만원	4.2	3.4	3.2	3.4
700~799만원		2.0	2.0	2.4
800~899만원	2.0	1.2	1.2	1.4
900~999만원		0.6	0.6	0.7
1000만원 이상	1.5	1.5	1.7	2.2

※ 각 연도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기준임.

한편, 재정패널 조사는 가구원 조사표에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에 한 해 연간 소득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구원 조사표에서 확인된 소득을 합산하면 해당 가구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다. (다만 가족의 용돈만이 유일한 소득인 가구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사적 이전소득의 총합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2009년에서 전체 가구의 연간 소득 평균 금액은 약 3천443만원 정도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에 가장 높았으며, 평균 금액에서도 가장 큰 액수를 보였다. 연도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소득의 경우, 2008년 이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Ⅵ-11> 가구 연간 소득 금액 : 가구원 소득 금액 합계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근로소득	2007년	62.1	3,310.5	2,111.1
	2008년	64.9	3,280.4	2,180.8
	2009년	67.3	3,399.5	2,286.2
사업소득	2007년	30.6	2,908.8	871.3
	2008년	32.7	2,431.8	760.4
	2009년	30.4	2,620.6	797.2
부동산 임대소득	2007년	6.5	1,072.5	61.3
	2008년	7.8	891.3	64.6
	2009년	7.3	1,022.6	74.4
이자 및 배당소득	2007년	4.1	563.9	21.4
	2008년	4.4	593.9	22.7
	2009년	3.2	634.0	20.5
기타소득	2007년	36.2	500.3	174.0
	2008년	39.3	503.5	191.3
	2009년	37.4	462.0	172.8
공적연금·보험소득	2007년	10.5	670.1	60.6
	2008년	12.0	717.7	76.4
	2009년	11.7	651.4	76.4
민간연금·보험소득	2007년	2.3	378.3	9.3
	2008년	3.6	427.3	16.9
	2009년	4.3	350.1	15.0
연간소득총액	2007년			3308.9
	2008년			3313.1
	2009년			3442.5

4. 가계 지출 현황

<표 Ⅵ-12>는 가구가 직접 소비하여 지출한 비용의 월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즉, 부모나 자녀에 대한 용돈, 경조사비, 대출 이자, 정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세금, 투자 등을 제외하고 직접 소비한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2007년에는 월평균 지출이 약 152만원, 2008년에서는 약 174만원, 그리고 2009년에서는 172만원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표 Ⅵ-12> 가계 월평균 소비 지출

단위(만원)	월평균 지출 금액
2007년	152.4
2008년	174.5
2009년	172.6

<표 Ⅵ-13>은 가구의 소비 중 월간으로 지출되는 항목을 조사한 표이다. 2009년 가계 월간 지출 금액 중에서는 식료품비와 주거비, 통신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5만원, 54만원, 13.7만원으로 다른 월간 지출항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지출항목으로는 식료품구입비 39.2만원, 외식비 14.8만원, 휴대폰 통화료 9.6만원 공공교통비 4.3만원 등에 해당되는 소비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식료품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Ⅵ-14>는 가구의 소비 중 연간으로 지출되는 항목을 조사한 표이다. 2009년 연간 지출 항목 중에서는 공교육비·사교육비, 의류/잡화 구입비, 의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약 135만원, 약 130만원, 약 385만원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으로는 의류구입 약 95만원, 등록금 등 공교육비 160만원, 사교육비 182만원, 혼인비용 48만원, 기부금 54원 등 다른 연간 지출 세부항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Ⅵ-13> 2009년 가계 월간 지출 현황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대분류	기준	소분류	비율(%)	평균 금액 (만원)	
주거비	월간	주거비용 총금액	99.6	16.7	16.6
	월간	전기료	99.4	4.4	4.3
	월간	수도료	94.5	1.8	1.7
	월간	도시가스요금	75.0	6.5	4.9
	월간	난방용 유류비	26.8	7.6	2.0
	월간	연탄	1.9	4.2	0.1
	월간	LPG	22.3	2.3	0.5
	월간	기타	23.6	5.8	1.4
식료품비	월간	식료품구입비	99.7	39.3	39.2
	월간	외식비	80.5	18.4	14.8
주류비	월간	맥주,소주,양주	43.7	3.4	1.5
	월간	기타 주류	17.1	2.1	0.4
담배구입비	월간	담배구입비	38.1	7.0	2.6
교통비	월간	공공교통비	89.1	7.4	6.6
	월간	개인교통비	60.4	7.1	4.3
통신비	월간	인터넷	74.3	2.9	2.2
	월간	집전화 통화료	72.6	1.7	1.2
	월간	휴대폰 통화료	93.0	10.4	9.6
	월간	유료방송 시청료	74.1	1.0	0.7
	월간	기타	0.6	3.3	0.0
문화생활비	월간	서적/음반 구입비	52.9	4.3	2.3
	월간	공연/영화 관람료	46.5	2.7	1.3
	월간	경륜/경정/경마	0.2	47.6	0.1
	월간	복권 구입	17.1	1.9	0.3
	월간	신문/잡지 구독	20.6	1.6	0.3

※ 조사표에서 천원 단위로 조사된 항목(주거비, 주류비, 담배구입비, 통신비, 문화생활비 등)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만원 단위로 재계산함.

※ 해당 가구의 평균을 구할 경우에는 각 항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산출함.

<표 VI-14> 2009년 가계 연간 지출 현황(계속)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대분류	기준	소분류	비율(%)	평균 금액 (만원)	
가전제품구입비	연간	TV	7.8	127.7	9.9
	연간	냉장고, 김치냉장고	9.0	110.3	9.9
	연간	세탁기	4.3	55.6	2.4
	연간	에어컨	2.4	108.5	2.7
	연간	전자레인지	1.5	20.8	0.3
	연간	기타가전제품	9.4	38.4	3.6
통신장비구입비	연간	휴대폰	18.2	28.7	5.1
	연간	컴퓨터	6.9	95.3	6.6
	연간	기타 장비	2.6	20.0	0.5
가구구입비	연간	가구구입비	8.7	142.9	12.5
의류구입비	연간	의류	95.8	98.9	94.7
	연간	잡화	80.2	34.4	27.6
	연간	장신구	32.2	25.6	8.2
화장품비	연간	화장품	89.5	36.2	32.4
	연간	이미용비	97.3	28.2	27.4
여행레저비	연간	여행 및 숙박료	46.4	110.6	51.3
	연간	레저장비구입비	7.1	83.2	5.9
교육비	연간	등록금 등 공교육비	45.9	418.8	160.0
	연간	급식비	45.9	82.5	24.4
	연간	기타 공교육비	45.9	51.4	12.2
	연간	가구원 사교육비	34.4	530.3	182.1
	연간	비가구원 공교육비	0.5	717.8	3.5
	연간	비가구원 사교육비	0.3	900.0	3.0
보건의료비	연간	보험 적용 의료비	84.9	74.0	62.8
	연간	한약재	18.8	57.8	10.8
	연간	성형수술비	1.0	122.2	1.2
	연간	치아교정비	30.9	135.8	42.0
	연간	입원치료비	17.6	201.6	35.5
	연간	외래진료비	84.9	30.4	25.8
	연간	약제비	88.7	22.3	19.8
혼인장례이사비	연간	혼인비용	2.3	2,058.6	48.1
	연간	장례비용	1.4	796.9	11.3
	연간	이사비용	10.1	99.9	10.0
기부금	연간	기부금	35.2	153.8	54.1

5.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표 Ⅵ-15>는 가구의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가구 내 이전은 '금전이나 재산을 주고 받은 경우'로 한정했고, 용돈이나 학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1차~2차년도 조사와는 측정 기준[5]이 달라졌다. 따라서 해당되는 가구의 비율이 대폭 줄어 들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속에 대한 조사는 3차년도 조사부터 이루어졌다. 3차년도 조사에서 일생동안 한번이라도 상속을 받은 적이 있는 가구는 10.4%였으며, 상속 당시의 금액은 1억 194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전체의 37.1%에서 확인됐으며 평균 금액은 291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구 간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는 25.7%였으며 평균 금액은 37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경조사 지출의 경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조사 소득 및 이혼 가구에 대한 이전지출과 이전 소득은 매우 작은 비중을 나타냈다.

5) - 1차년도, 2차년도 설문 : "지난 한 해 동안 귀 가구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간에 용돈이나 학비 지원 용도로 주거나 받은 비용이 있습니까? 단, 함께 사는 부부간에 주고받은 용돈과 생활비는 제외합니다."
- 3차년도 설문 : "지난 한 해 동안 귀 가구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간에 금전이나 재산을 주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간에 주고 받은 용돈과 학비는 제외합니다."

<표 Ⅵ-15> 이전지출 및 소득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대분류	기준	소분류		비율(%)	평균 금액 (만원)	
상속	평생	상속 당시 금액		10.4	10,194.3	996.1
이전소득 지출	연간	가구 내 이전		1.1	1,056.0	11.5
	연간	가구 간 이전지출		37.1	290.9	107.8
	연간	가구 간 이전소득		25.7	374.6	96.3
경조사	연간	경조사 지출	2007년	86.7	90.1	77.7
			2008년	89.2	80.9	71.7
			2009년	88.8	84.3	74.8
	연간	경조사 소득	2007년	7.2	669.0	49.7
			2008년	7.4	632.0	47.7
			2009년	7.1	787.5	55.6
이혼 가구	연간	이혼 후 지출 양육비	2007년	0.2	606.4	1.2
			2008년	0.2	1128.8	2.2
			2009년	0.2	498.4	0.9
	연간	이혼 후 소득 양육비	2007년	0.1	560.9	0.8
			2008년	0.3	496.4	1.9
			2009년	0.4	860.4	3.1

6. 복지현황

<표 Ⅵ-16>은 복지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2차, 3차년도 조사와 달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그 외 정부 현금보조관련 조사를 하나의 설문에서 하고 있어 총액은 비교가능하지만 <표 Ⅵ-17>과 같이 세부적인 항목으로 비교는 제한점이 있다.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4.4%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구의 연간 평균 급여는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고

령층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가 16.5%, 기타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가 9.1%로 조사됐다.

<표 Ⅵ-16> 복지 현황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연간)	2007년	4.7	386.8	17.1
	2008년	4.3	414.7	16.8
	2009년	4.4	399.6	17.6
고령층 정부지원금 (연간)	2007년	-	-	-
	2008년	18.3	88.8	14.8
	2009년	16.5	121.2	19.9
기타 정부지원금 (연간)	2007년	-	-	-
	2008년	7.1	194.4	12.8
	2009년	9.1	214.2	19.5

7. 기타 환급금 및 보조금

전체 표본가구의 6.4%에서 유가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가구의 평균 환급 금액은 약 22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은 가구는 23.3%였으며,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가구는 1.7%로 조사됐다.

<표 Ⅵ-17> 기타 환급금 및 보조금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유가환급금	6.4	22.3	1.4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	23.3	76.4	17.4
종합소득세 환급금	1.7	47.9	0.8
유가보조금	1.7	286.2	4.7

8. 가구 자산 및 부채

가. 금융자산

<표 Ⅵ-18>은 연도별 금융자산의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저축성 보험 및 연금성 보험이 조사되지 않았고 이는 기타금융자산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차년도 조사의 기타금융자산과 2차년도, 3차년도 조사의 기타금융자산의 정의에는 차이가 있다. 2009년 금융자산 중에는 금융기관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전체 표본가구의 금융자산 평균 총액은 2,62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금융기관 예적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채권보유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VI-18> 금융자산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2007년	62.9	2,069.7	1,294.3
	2008년	65.6	2,034.8	1,307.4
	2009년	67.7	2,187.4	1,480.4
펀드 가입 금액	2007년	18.8	1,464.6	275.8
	2008년	17.8	1,479.9	262.5
	2009년	14.3	1,784.3	255.4
채권 보유 금액	2007년	0.5	3,103.3	12.7
	2008년	0.4	1,475.9	4.5
	2009년	0.6	2,486.3	14.8
주식 보유 금액	2007년	10.4	2,801.5	270.2
	2008년	10.3	2,548.5	245.0
	2009년	9.3	2,979.6	275.7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2007년	-	-	-
	2008년	28.2	1,192.7	336.1
	2009년	28.5	1,396.2	397.5
빌려준 돈	2007년	4.8	3,110.9	150.7
	2008년	3.8	3,003.6	117.5
	2009년	3.9	3,965.2	154.0
기타 금융자산	2007년	17.7	1,465.9	263.4
	2008년	0.8	1,686.9	16.0
	2009년	2.5	1,824.1	45.5
금융자산 총액	2007년			2,267.1
	2008년			2,289.0
	2009년			2,623.4

나. 부동산 자산

<표 VI-19>는 연도별 부동산 자산의 추이를 보여준다. 1차년도 조사는 2차, 3차년도 조사와 설문문항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전세 및 월세의 보증금'만을 조사하였는데 2차, 3차년도 조사에서는 이를 더 세분화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거주), 주택 전월세보증금(비거주). 비주택 전월세 보증금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따라서 1차년도 조사의 결과와 다른 해의 조사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009년 부동산자산 중에는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전체 표본가구의 부동산자산 평균 총액은 1억8천947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Ⅵ-19> 부동산 자산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거주 자가 주택 시가총액*		2007년	57.9	20008.8	11,057.0
		2008년	59.2	18,964.9	10,451.9
		2009년	54.5	19,357.2	10,488.4
전세 및 월세 보증금		2007년	35.3	7,400.3	1,871.4
	주택 전월세 보증금 (거주)	2008년	34.7	5,889.2	1,993.8
		2009년	38.6	5,474.1	2,111.3
	주택 전월세 보증금 (비거주)	2008년	0.8	9,323.6	54.7
		2009년	2.4	12,107.3	279.7
비주택 전월세 보증금		2008년	3.5	6,537.9	217.8
		2009년	3.8	3,863.0	145.0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2007년	11.5	32,488.1	2,837.4
		2008년	14.2	23,941.9	3,115.4
		2009년	15.1	23,308.9	2,962.2
주택 외 보유 부동산		2007년	16.0	19,335.4	2,659.9
		2008년	15.2	18,525.9	2,601.9
		2009년	14.4	21,214.1	2,960.6
부동산 자산 총액		2007년			18,425.7
		2008년			18,435.5
		2009년			18,947.2

※ 거주 자가 주택 시가총액은 앞서 주택 현황에서 이미 조사한 문항이나 부동산 자산 총액 계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여기에 다시 포함시킴.

다. 기타 자산

<표 Ⅵ-20>은 2008년과 2009년 기타자산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2009년에서 전체 표본가구는 평균적으로 140만원의 기타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8년에는 약 14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비중이 작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높은 선박, 건설중장비를 기타자산으로 보유한 가구도 존재하였다. 참고로 1차년도 조사에서는 보유회원권(골프, 콘도 등)과 기타자산을 조사하고 있어 이후의 조사들과는 차이가 있다.

<표 Ⅵ-20> 기타 자산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보유 회원권(골프, 콘도 등)	2008년	0.6	9,678.6	35.5
	2009년	0.3	2,677.4	7.0
농기계, 가축	2008년	3.3	2,338.4	60.1
	2009년	2.4	2,763.4	65.0
선박, 건설중장비	2008년	0.4	6,227.3	26.6
	2009년	0.3	6,428.9	20.9
기타 자산	2008년	2.5	633.9	23.7
	2009년	3.3	1,427.6	46.6
기타 자산 총액	2008년			145.9
	2009년			139.5

라. 부채

<표 Ⅵ-21>은 연도별 부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차, 2차년도 조사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조사하였으나 3차년도 조사부터 세분화하여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과 이를 제외한 금융기관대출을 조사하였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중은 각 연도별로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부채 가운데에서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 표본가구의 평균 부채 금액은 3,599만원으로 나

타났다. 전체적으로 금융기관대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 및 보증금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금융기관대출의 경우 연도별 비중의 증가도 약 3%로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Ⅵ-21> 부채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2007년	6.8	4,668.7	293.6
	2008년	6.1	6,574.8	352.3
	2009년	2.8	4,018.7	111.0
학자금 대출	2007년	2.8	960.8	28.0
	2008년	3.4	1,113.4	41.4
	2009년	3.0	1,546.9	47.1
금융기관 대출	2007년	33.6	6,802.9	2102.4
	2008년	36.0	6,344.8	1,994.5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2009년	17.9	7,970.2	1,421.7
금융기관 대출 (주택담보 제외)	2009년	21.5	3,944.5	845.0
전세금/보증금	2007년	11.2	8,114.9	844.5
	2008년	14.6	8,142.2	1,123.9
	2009년	15.9	7,481.3	1,090.0
기타	2007년	5.4	2,800.4	164.6
	2008년	2.0	2,500.8	48.6
	2009년	3.2	2,629.5	83.7
부채 총액	2007년			3,433.1
	2008년			3,560.8
	2009년			3,598.5



Ⅶ. 가구원 조사표 조사결과 요약

Ⅶ. 가구원 조사표 조사 결과 요약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소득은 연금·보험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 순으로 조사했다. 기타소득에는 이전소득과 정부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여기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이 소득의 전부인 가구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종의 이전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세금 납부나 정부 지원과 같은 국가 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항목이며 이미 가구 조사표에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조사하지 않았다.

1. 조사시점 5월 기준 경제활동상태

가. 소득활동 현황

3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57.4%,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23.9%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의 비율이 81.3%로 나타났다. 무직자나 고령자도 외부에서 받는 소득이 있을 경우 가구원 조사표의 조사대상이 되므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이 조사된 경우도 18.7%로 나타났다. 2차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상용직과 임시직 비중이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도별 비중의 변화는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표 Ⅶ-1> 가구원 소득 활동 현황

단위(%)	임금근로자(57.4), 57.1			비임금근로자(23.9), 24.3			소득활동 안함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2차	42.9	6.6	7.6	19.3	4.3	0.7	18.6
3차	43.1	7.1	7.2	19.6	3.7	0.6	18.7

나. 비소득활동 가구원의 구직 여부

<표 Ⅶ-2>는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 중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표이다. 2차년도 조사에서는 약 10%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차년도 조사에서는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 중 8.7%만이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86.6%, 80.5%로 다수를 차지했다.

<표 Ⅶ-2> 비소득활동 가구원의 구직 여부

단위(%)	일자리 찾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자기발전	기타
2차	86.6	9.6	3.8
3차	80.5	16.0	3.5

2. 연간 소득(개인)

가. 연금·보험 소득

<표 Ⅶ-3>은 연도별 연금/보험 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에는 연금이나 보험을 통한 소득이 있는 가구원은 조사 대상 중 11.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적연금소득의 비중이 사적연금소득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적연금소득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적연금소득 중에서는 보장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3> 연금·보험 연간 소득

항목			소득 해당 가구원		소득 가구원 평균 연간 소득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공적 연금 소득		2007년	7.7	644.2	43.6
		2008년	8.7	693.7	54.3
		2009년	8.6	618.6	53.3
사적연금소득	퇴직연금	2007년	0.1	610.5	0.4
		2008년	0.2	1,152.1	2.4
		2009년	0.2	1,242.1	2.9
	연금신탁/연금펀드/연금저축	2007년	0.1	180.3	0.08
		2008년	0.3	1,180.5	0.2
		2009년	0.1	217.8	0.1
	연금보험	2007년	0.2	589.4	1.1
		2008년	0.2	516.9	0.9
		2009년	0.2	406.5	0.6
	보장보험(질병/상해/사망)	2007년	1.2	364.2	4.9
		2008년	2.0	350.4	7.5
		2009년	2.3	266.8	6.1
	저축보험	2007년	0.07	101.9	0.07
		2008년	0.1	283.9	0.4
		2009년	0.04	489.6	0.2
	자동차보험	2007년	0.1	115.8	0.1
		2008년	0.4	131.5	0.6
		2009년	0.4	116.8	0.5
연금·보험 소득 총액		2007년			50.3
		2008년			66.3
		2009년			63.7

나. 연간 소득

<표 Ⅶ-4>는 가구원의 연간소득을 나타낸 표이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그 이후의 조사에서와 달리 기타소득에서 '용돈, 생활비, 학비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정부지원 현금'에 대한 설문을 세부화하지 않아 기타소득에 대한 결과가 다른 조사와 다르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009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비율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금액은 2천664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원은 소득 가구원의 22.5%였으며, 이들 가구원의 평균 소득 금액은 2천

462만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자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타소득 중에서 정부지원현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표 Ⅶ-4> 연간 소득

항목			소득 해당 가구원		소득 가구원 평균 연간 소득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근로소득		2007년	55.1	2,670.2	1,517.1
		2008년	57.4	2,612.6	1,549.4
		2009년	60.6	2,663.8	1,598.2
사업소득		2007년	22.8	2,771.2	626.3
		2008년	24.2	2,285.5	540.2
		2009년	22.5	2,461.7	557.0
부동산 임대소득		2007년	4.6	1,072.5	44.1
		2008년	5.5	881.1	45.9
		2009년	5.1	1,015.0	51.9
이자 및 배당소득		2007년	2.9	559.5	15.4
		2008년	3.1	580.6	16.1
		2009년	2.3	618.5	14.3
기타소득	용돈, 생활비, 학비 등	2007년	-	-	-
		2008년	15.9	333.6	51.7
		2009년	15.4	385.2	62.1
	국민기초 생활 보장급여	2007년	-	-	-
		2008년	3.1	414.6	12.1
		2009년	3.2	371.6	11.9
	정부지원 현금	2007년	-	-	-
		2008년	20.6	99.1	18.7
		2009년	18.5	131.5	24.3
	기타 소득*	2007년	32.7	401.1	125.1
		2008년	5.8	895.1	53.4
		2009년	3.2	709.1	22.4
연간 소득 총액		2007년			2,328.1
		2008년			2,287.6
		2009년			2,342.1

※ 2007년도 기타소득은 2008년과 2009년의 기타소득과 차이가 있음.

3. 연간 연금·보험 지출

가. 공적 연금·보험 관련 지출

<표 Ⅶ-5>는 공적 연금보험 연간 지출을 나타낸 표이다. 2009년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구원은 45.3%였으며 이들의 연간 납부 금액은 평균 122만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65.5%, 고용보험은 35.0%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순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다.

<표 Ⅶ-5> 공적 연금·보험 연간 지출

항목		지출 해당 가구원*		소득 가구원 평균 연간 지출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국민연금	2007년	42.7	126.4	54.9
	2008년	43.9	118.0	52.5
	2009년	45.3	122.4	55.2
특수직역연금	2007년	3.6	198.8	7.4
	2008년	5.2	214.5	11.0
	2009년	5.2	228.2	11.8
건강보험	2007년	64.3	84.9	55.9
	2008년	63.5	87.7	57.4
	2009년	65.5	89.5	58.2
고용보험	2007년	30.6	14.8	4.6
	2008년	31.6	14.7	4.8
	2009년	35.0	12.7	4.3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고용보험의 가구원 수는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

나. 민간 연금·보험 관련 지출

<표 Ⅶ-6>은 민간 연금보험 연간 지출을 나타낸 표이다. 2009년 연금·보험 지출 금액에서는 보장성 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아, 56.5%의 가구원이 연간 평균 18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장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Ⅶ-6> 민간 연금·보험 연간 지출

항목		지출 해당 가구원		소득 가구원 평균 연간 지출 (단위: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퇴직연금	2007년	0.7	493.2	3.9
	2008년	0.7	299.5	2.4
	2009년	0.4	224.9	0.8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신탁	2007년	7.2	566.2	40.1
	2008년	4.8	269.8	12.5
	2009년	6.1	265.3	16.3
연금보험	2007년	6.9	552.6	38.0
	2008년	10.1	306.6	30.3
	2009년	10.2	300.0	30.2
보장보험	2007년	49.7	307.5	156.1
	2008년	52.1	185.4	97.9
	2009년	56.5	188.6	106.5
저축보험	2007년	3.0	614.2	20.1
	2008년	5.8	282.7	17.3
	2009년	4.7	389.9	18.1
자동차보험	2007년	40.3	309.3	123.3
	2008년	36.2	69.5	24.7
	2009년	37.2	67.4	25.0

4. 소득공제 내역

1) 소득세 납부 유형

<표 Ⅶ-7>은 소득세 납부유형을 나타낸 표이다. 2009년에는 소득 가구원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를 한 경우는 49.5%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가구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전체적으로 각 연도별 소득세 납부 유형 중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Ⅶ-7> 소득세 납부 유형

구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동시 신고	해당 없음
2007년	33.7	10.2	0.06	56.1
2008년	36.1	11.2	0.04	52.6
2009년	37.7	11.8	0.04	50.5

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가구원의 공제내역과 결정세액

<표 Ⅶ-8>은 소득세 연말정산 가구원의 공제내역과 결정세액을 보여주는 표이다. 표에서 해당자 비율과 전체 평균금액은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응답한 가구원(n=2,564)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공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결정세액 계산에서는 세금이 0인 케이스를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2008년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n=2,576)중 에서 모름/무응답(-9)를 제외한 2,053명의 결과 값이며, 2007년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n=2,387)중 에서 모름/무응답(-9)를 제외한 1,701명의 결과 값이다. 또한 가중치적용이 되지 않는 가구원은 제외하였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2009년에서는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른 연도와 비교를 해 보아도 이와 같은 비중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Ⅶ-8>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가구원의 공제내역과 결정세액

항 목		해당 가구원		연말정산 가구원 평균 공제 금액 및 결정세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보험료	2007년	71.2	175.1	124.5
	2008년	79.4	171.4	135.8
	2009년	79.9	182.9	145.6
의료비	2007년	21.2	148.9	32.1
	2008년	23.2	194.9	45.6
	2009년	25.1	194.9	47.8
교육비	2007년	27.1	274.9	74.7
	2008년	35.3	279.1	91.4
	2009년	31.8	327.6	102.6
주택자금	2007년	11.9	187.0	22.7
	2008년	15.5	160.6	26.1
	2009년	16.2	185.6	29.8
기부금	2007년	24.1	132.8	30.9
	2008년	26.8	133.3	34.6
	2009년	30.0	127.8	37.6
혼인/장례/이사비	2007년	1.6	110.2	1.9
	2008년	0.8	104.4	0.9
개인연금저축	2007년	6.7	58.8	3.8
	2008년	4.4	51.4	2.0
	2009년	4.1	46.5	1.6
연금저축	2007년	10.3	197.7	19.3
	2008년	9.9	209.9	19.4
	2009년	11.9	223.7	26.1
투자조합출자	2007년	0.04	50	0.02
	2008년	0.1	400.2	0.7
	2009년	0.2	336.2	0.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07년	53.0	165.8	88.1
	2008년	56.5	233.0	132.0
	2009년	57.4	235.7	132.9
우리사주조합	2007년	0.5	288.9	1.3
	2008년	0.3	288.5	0.7
	2009년	0.8	324.4	2.5
장기주식형 저축	2007년	-	-	-
	2008년	0.3	23.8	0.07
	2009년	1.6	50.9	0.8
기타	2007년	0.04	300	0.3
	2008년	0.9	98.5	0.9
	2009년	0.4	182.7	0.7
결정세액	2007년		108.1	108.1
	2008년		84.3	84.3
	2009년		**87.2**	**87.2**

다. 종합소득세 신고 가구원의 공제내역과 결정세액

<표 Ⅶ-9>은 종합소득세 신고 가구원의 공제내역과 결정세액을 보여주는 표이다. 여기서 해당자 비율과 전체 평균금액은 2009년 종합소득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가구원(n=874), 2008년 종합소득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가구원(n=803), 2007년 종합소득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가구원(n=722)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또한 공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결정세액 계산에서는 세금이 0인 케이스를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또한 각각 해당 조사연도에서 모름/무응답(-9)를 제외한 값은 479명, 620명의 결과 값이다. 2009년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연금보험료의 비중과 표준공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07년도의 경우, 기타에 표준공제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연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기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Ⅶ-9> 종합소득세 신고 가구원의 공제내역과 결정세액

항목		공제 해당 가구원		종소세 가구원 평균 공제 금액 및 결정세액* (만원)
		비율(%)*	평균 금액 (만원)	
연금보험료	2007년	30.0	133.2	38.4
	2008년	25.3	143.4	39.5
	2009년	27.8	139.6	38.1
기부금	2007년	11.9	178.0	17.5
	2008년	8.6	141.4	10.9
	2009년	7.7	152.0	10.9
개인연금저축	2007년	4.7	66.3	2.8
	2008년	1.2	66.2	0.6
	2009년	1.7	64.4	0.8
연금저축	2007년	3.3	226.9	6.3
	2008년	3.2	157.2	3.7
	2009년	4.5	199.8	8.5
투자조합출자 등	2007년	0.1	200	0.3
	2008년	0	0	0
	2009년	0.1	24.0	0.0
장기주식형저축	2007년	-	-	-
	2008년	0	0	0
	2009년	0.0	0.0	0.0
표준공제	2007년	-	-	-
	2008년	61.8	65.8	39.6
	2009년	71.8	64.8	46.0
기타	2007년	99.0	61.8	61.2
	2008년	2.6	299.3	8.3
	2009년	1.9	116.3	1.7
결정세액	2007년		125.0	125.0
	2008년		56.0	56.0
	2009년		**67.3**	**67.3**